metro®
메트로 2014년 1월 2일 목요일 제2885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4

45개월 만에 새 앨범 컴백

Festival p/20

얼음속 월척 낚으러 가요

새해 첫날부터 생활물가 인상

NEWS p/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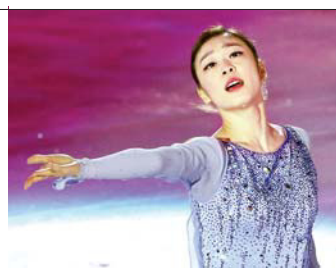
전입신고 도로명주소만 허용

NEWS p/03

오늘 신년 특집 32면 발행

더 큰 희망을 드리는 NH농협금융으로!
더 큰 행복을 드리는 NH농협금융으로!
2014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뛰겠습니다.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증권 NH-CA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농협선물

metro®
메트로 2014년 1월 2일 목요일 제2885호 www.metroseoul.co.kr

스마트폰에 담은 새해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아차산 해맞이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2014년 갑오년 새해를 알리는 첫 일출을 휴대전화에 담고 있다. 이날 전국적으로 큰 추위 없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해맞이 관광객으로 붐볐고, 해가 뜨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다. /연합뉴스

다시 희망이다

2014년은 한국경제 재도약·정체 기로…경제인들 "말처럼 힘차게 뛰겠습니다"

"경제성장의 불씨를 살려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불안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체에 빠지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인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아랫목 온기가 윗목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올해는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런 시기를 맞아 우리 기업은 소명감을 갖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겠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관련기사 10·11면>

'청마의 해'인 2014년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말에 불어온 ▲무역 1조 달러 3년 연속 달성 ▲사상 최대 수출액 ▲사상 최대 흑자 등 '트리플 크라운' 달성의 훈풍이 국민 개개인에게 따듯한 온기로 전해지는지 판단하는 한 해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2% 성장한 것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재계가 경고하듯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와 양적완화 축소 등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들이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와 가계부채 등으로 민간 소비도 지속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장기 불황의 터널로 빠져들지, 1인당 국민소득 2만 4000달러를 넘어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할지 좌표가 되는 해가 올해다.

우리 경제의 책임은 오롯이 기업, 아니 기업가의 몫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주장처럼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전후의 폐허에서 철강 산업을 일으키고, 선진국 영역인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산업에 도전해 지금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금도 실패와 역경을 극복하고,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강소기업이 적지 않다.

박용만 회장은 "세계적인 석학들도 극찬했던 한국 기업가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다시 살려 경제 회복과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화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우리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또 "아랫목 온기가 윗목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 및 동반성장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기업과 기업가에게만 돌릴 수 없다. 이희범 경총 회장의 바람처럼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도록 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서야 할 때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특별호와 함께 "해피 뉴 이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 비치된 메트로신문 뉴이어 특별판을 한 시민이 받아들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알림

새해 새 아침 '다섯 가지 다짐'

메트로신문 '제2 창간' 선언…이렇게 달라집니다

메트로신문이 청마의 해를 맞아 '제2의 창간'을 선언하며 재도약합니다. 지난 11년간 무료 일간지 시장을 선도해 온 메트로신문은 신년을 맞아 확 달라진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모토를 '다시 희망이다'로 정하고, 경제 분야의 강화와 행복사회·창조 한국을 위한 다양한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관련기사 12·13면>

1. 24시간 365일 깨어있는 신문

지면과 온라인, 모바일 등 언제 어디서든 독자와 소통하겠습니다.
① 자체 온라인 메트로신문 사이트 오픈
② 네티즌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emetro.co.kr 도메인 추가
③ 자체 개발한 무선원격제어관리시스템(WCMS) 솔루션을 활용해 온라인 기능 대폭 확대
④ 자동차 등 특화 영역 별도 사이트로 제공

2. 푸른 생선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문

독자 및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살아있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① 컨슈머 리포트 및 소비자 고발
② 증권·부동산 등 재테크 관련 콘텐츠 확충
③ 연중 기획 '청년 일자리 찾기 캠페인' 전개

3. 눈에 보이는 듯한 깊이 있는 신문

각 분야의 전문 기자들이 독자의 시각으로 사회현상을 재해석한 기획 및 분석 기사를 제공하겠습니다.
① 경제 기사 비중 확대
② 연중 기획 '공정사회로 가는 길' 게재
③ 중·단기 기획 월 1회 이상 게재
④ 이슈 진단 등 심층 해설 및 분석 기사 수시 게재

4. 펀&조이(Fun&Joy)한 신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젊은층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① 가십부터 이슈 분석까지 연예·스포츠 기사 제공
② 제품 리뷰에서 트렌드까지 IT 섹션 강화

5.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글로벌 신문

전 세계 메트로신문과 연계해 국내 기사를 해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① 메트로신문이 발행되는 27개국, 220개 도시에 한국 기사 송출
② K-팝 등 연예, 재계 및 산업·IT 기사 해외 중점 홍보

metro

또 정치에 휘둘린 경제

기자 수첩

박 선 옥 <경제산업부 기자>

2013년의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9년 만에 전격 폐지됐다.

그동안 부동산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데다, 이 제도가 추가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유주택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줄곧 주장해 왔다.

폐지에 따른 파급력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얼어붙은 매수심리를 녹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의 긍정적인 효과와는 별개로 처리 되는 과정은 곱게만은 볼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꼽히던 법안을 '빅딜 패키지 협상' 운운하며 주고받는 식으로 거래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서다.

결국 새누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물론, 이와 맞바꾼 민주당의 부자 증세·국정원 개혁법안 모두 제대로 된 검증조차 받지 못한 채 오로지 정치 논리에 의해서만 타결이 이뤄진 셈이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됐지만 이 안에 정치권의 진심은 담기지 않았다. 새해에는 시간에 쫓긴 땡처리식 거래가 아닌, 민심을 읽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생활물가 줄줄이 오른다

새해 첫날부터 도시가스료 5.8%·초코파이값 20% 인상…내달엔 우체국 택배요금도↑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새해에 들어서자마자 도시가스·우체국 택배 등 공공요금은 물론 식음료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5.8%(서울시 소매가 기준)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 취사·난방용이 5.7%, 산업용이 6.1%, 영업용1(식당·숙박업 등) 5.5%, 영업용2(목욕탕·폐기물처리소 등)가 5.8%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 부담이 평균 4300원 증가할 전망이다.

우체국 택배(소포) 요금도 9년 만에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2월 1일부터 고중량 소포의 요금을 500~1500원 인상하기로 하고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안)'를 행정예고했다.

교통요금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올해 철도요금 5% 인상을 내부 목표로 정해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올해 시내버스 요금을 5%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일반 택시요금을 평균 17% 이상 올렸으며,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시내버스 요금을 11%, 도시철도(지하철) 요금을 9% 인상했다.

식음료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오리온은 '국민 간식' 초코파이 가격을 올해 생산분부터 12개들이 한 상자 기준 4000원에서 4800원으로 20% 올린다. 해태제과도 에이스를 비롯해 7개 제품 가격을 평균 8.7% 인상한다.

파리바게뜨는 15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7.3% 인상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 1.3%보다 1%포인트 높은 2.3%"라며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집 생각 절로 나시죠" 2년 연속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킨 불명예를 안은 국회의원들이 1일 새벽 본회의가 정회되자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진 "적이 도발한다면 가차없이 응징"

김관진(사진) 국방장관이 1일 "적이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시험하고자 한다면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각급 부대 지휘관·참모들에게 하달한 '장관 서신 제19호'를 통해 "자유·평화의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예로 들어 "적이 도발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정확·충분하게 가차없이 응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 상황은 장성택 처형 후 불확실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북한은 새해에도 내부 결속 목적 또는 군부의 충성 경쟁 등으로 도발해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진단했다. /김민준기자

김정은 "북남 관계개선 분위기 마련해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남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

김 제1위원장은 "북남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됐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택 숙청에 대해서는 "당 안에 배어있던 종파 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며 "반당·반혁명 종파 일당을 적발 숙청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가 굳건히 다져졌다"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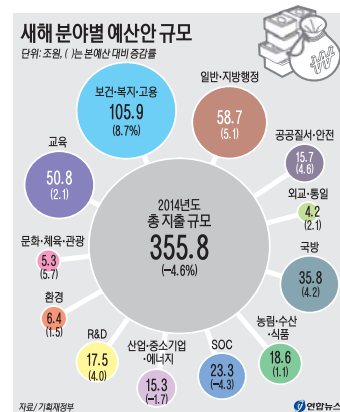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2년 연속 '제야의 종 예산'

해 넘겨 355조 의결

2014 예산안이 국가정보원 개혁법·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과 연계돼 '진흙탕' 공방이 펼쳐진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불명예를 안았고, 여야는 정략적 주고받기의 구태를 재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는 1일 새벽 355조8000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가량 줄었다.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진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늘었다.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 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4000원 높은 18만8000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본회의는 국정원 개혁법·외촉법 처리 등으로 표류했고,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논란까지 이어지며 개의된 지 24시간30여 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안건 처리가 마무리됐다. /김민준기자

뉴스 & 뉴스

황교안 "이진한 차장 성추문 진상 조사중"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여기자 성추문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차장검사에 대해 "검찰 감찰본부에서 진상 확인 중"이라고 1일 말했다.

황 장관은 "감찰본부를 통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 전원 사표 제출

●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직서 제출자는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등이다. 총리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에 연구비 횡령…'비리 백화점' 광해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사업을 몰아주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수억원의 연구비를 신청해 개인적으로 챙긴 교수들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관련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광해관리공단 전 본부장 권모(56)씨와 전 지사장 이모(59)씨를 구속 기소하고 팀급 직원 한 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권씨와 이씨는 2009년 3~4월 A사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준기자

본사 인사

<편집국>

▲경력기자

△경제산업부 차장 금융팀장 박정원

△온라인뉴스부 차장 김두탁

△정치사회부 기자 윤다혜·조현정 (온라인뉴스부 겸직)

▲수습기자

김지민 김학철 백아람 서승희 전효진 정혜인

"할머니, 세배 받으세요"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할머니들에게 세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입신고 땐 도로명주소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승용차 사고팔 때 실명제·대체휴일제도 시행

올해부터 승용차 등을 실명으로 사고팔도록 하는 자동차 거래실명제가 도입된다.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도 시행된다.

자동차를 팔려고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처럼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위장 거래를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조치다.

또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가 돼 모든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3월 18일부터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할 때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징병 신체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1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올해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월부터는 무인 민원 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현재 400원에서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된다.

전국의 모든 버스와 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서 두루 이용할 수 있는 선불 교통카드도 출시된다. 노인 복지제도도 늘어나 7월부터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치아 임플란트에도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환자 부담금 상한액은 저소득층이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고소득층은 500만원으로 오른다.

세금 제도도 대폭 손질돼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지고 기존 소득공제는 세액 공제로 바뀐다. 병사 봉급도 15% 올라 병장은 매달 14만9000원을, 이등병도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선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 2014년 '대한민국 1호'

말띠해 첫 아기 2명 "응애응애"

2014년 1월 1일 한 해의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 1호'가 잇따라 탄생했다.

제야의 종이 울리자마자 차병원과 제일병원에서는 새해 첫 아기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이날 오전 0시0분 서울 역삼동 차병원에서는 김현태(35)·어희선(33·여)씨 부부가 2.8㎏의 딸을 얻었다. 서울 묵정동 제일병원에서도 같은 시각 김이규(34)씨와 강민경(32·여)씨 사이에서 3.415㎏의 여자 아이가 태어났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 발을 들인 손님은 20대 중국 여성이었다.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KE854편 B777-200 여객기를 타고 출발한 중국인 양징(24·여)씨는 이날 오전 0시2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해가 뜬 곳은 독도로, 관측시각은 오전 7시26분23초였다.

/윤다혜기자

1일 0시0분01초에 서울 역삼1동 차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힘차게 울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女 건강지원사업 평가회

서울시 강동구가 '장애여성 건강행복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새해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장애여성 건강지원 네트워크 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구는 이달 중 장애친화병원 매뉴얼을 배포해 장애인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빗물펌프장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시 영등포구가 민간 자본을 활용해 영등포문화원, 대림3 빗물펌프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각 50㎾씩 총 100㎾로, 연간 53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도봉우체국 오늘부터 서비스

서울도봉우체국이 2일 문을 열고 도봉구 지역 주민을 위한 우정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도봉우체국은 도봉구 노해로 150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만7441.48㎡에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다.

"딩동! 치킨 왔어요" 자장면 제치고 배달음식 1위

치킨이 자장면을 제치고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에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일 전국 3002개 가구를 대상으로 외식소비 행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시켜 먹은 음식으로 치킨을 꼽았다고 밝혔다.

'치킨 등 닭요리'를 주로 시켜 먹는다고 답한 비율은 42.4%에 달했지만 '자장면 등 중화요리'의 비율은 21.5%에 그쳤다. 피자를 꼽은 응답자의 비율은 16.6%였고, 보쌈·족발을 택한 응답자가 10.1%로 뒤를 이었다.

배달 음식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음식의 맛(33%), 가격 수준(20%), 배달의 신속성(20%), 메뉴 종류(16%), 업체의 신뢰도(3%) 등이 꼽혔다.

/윤다혜기자 ydh@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6일 개통 … 위반땐 범칙금

서울시는 연세대 앞 신촌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해 6일 낮 12시 개통한다.

이에 따라 신촌 연세로 550m 구간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버스 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 시속 30㎞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존 30(Zone 30)'체제로 운영된다. 일반차량은 24시간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시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택시 운행은 허용된다. /윤다혜기자

아찔한 외줄타기 1일 용인 한국민속촌을 찾은 관람객들이 박진감 넘치는 줄타기 공연을 보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첫 출근

2007년 1월 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 첫 출근해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반 총장은 임시숙소로 사용 중이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15분 남짓 걸리는 유엔본부까지 걸어서 이동했고 이동 중 관광객들의 사진촬영 부탁에도 응하는 등 열린 사무총장의 이미지를 과시했다.

첫날부터 재 뿌린 아베

"강한 일본 되찾기 위한 싸움 이제 막 시작"… 헌법 개정의지 노골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해 첫날부터 헌법 개정 의지를 밝히며 '극우 본색'을 드러냈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연두 소감에서 "헌법이 제정된 지 68년이 되는 지금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 개정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한 일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했다"며 "새로운 일본을 만들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집권 자민당은 2012년 실시된 총선에서 전후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헌법 제9조 개정,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자민당은 헌법 96조를 개정, 개헌안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발족시킨 것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그는 "어느 때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 평화주의야말로 일본이 짊어질 21세기의 간판"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거국적인' 발언처럼 보인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비판이 일본 안팎에서 거세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은 단호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의 영토 분쟁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은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강한 경제를 되찾기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우경화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의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은 주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왔다.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 등에 있어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 역사 정의를 수호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서 폐장을 알리는 종을 치기 직전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자신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로 주가가 연간 57%나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증시 폐장일 행사에 참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AP 연합뉴스

새해 맞는 기쁨은 '국경초월'

2014년 새해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다채로운 새해맞이 행사들이 열렸다. 브라질에서는 1일 자정을 기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열렸다. 리우데자네이루시 남부 코파카바나 해변에는 230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해변으로 모여든 시민과 관광객들은 수은주가 38도를 가리키는 무더운 밤 기온 속에서도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위). 중국 베이징 근교의 유명관광지 바다링 만리장성에서는 형형색색의 레이저가 만리장성을 휘감는 레이저쇼가 펼쳐졌다(가운데). 미국 뉴욕 시민들은 타임스스퀘어에서 10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카운트다운 행사에 참여하며 새해를 맞았다. /AP AFP 연합뉴스

"미 NSA, 아이폰 해킹용 소프트웨어 개발"

문자메시지·카메라 제어 가능…애플 "협조한 바 없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애플 아이폰용 해킹 도구를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독일 주간지 슈피겔을 인용, NSA가 개발한 해킹용 도구 가운데 '드롭아웃지프'라는 아이폰 도청용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전했다.

이 소프트웨어가 아이폰에 설치되면 파일과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부, 위치 정보 등에 접근 가능하고 카메라와 마이크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애플 관계자는 "NSA가 도청 설비를 개발하는 데 애플은 전혀 협조한 바 없다"며 "보도된 NSA 프로그램이 우리 제품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NSA의 도청 시도가 폭로되자 미국의 정보기술(IT)업체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 행태로 실리콘밸리 내 IT기업들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고객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IT업체들은 NSA의 도청과 사찰을 막기 위해 추가 보안 비용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조선미기자

호주서 또 '묻지마 폭행'

18세 청년 머리 다쳐 중태

호주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 10대 청년이 '한 방 펀치'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소식에 호주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1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전날 시드니 시내에서 18세 청년이 25세 청년에게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의 국적 등 신원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

소년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해자에게 공격을 받고 쓰러져 보도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모방범죄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약 1년 전 시드니 맥쿼리 대학교 학생 토머스 켈리(18)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과 가해자의 공격 형태가 비슷하고 숨진 장소도 부근이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으로 볼 때 모방범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호주에서는 별 다른 이유도 없이 행인을 공격하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횡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을 포함해 많은 아시아인이 공격 대상이 되면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선미기자

셜록 홈즈 캐릭터 앞으론 공짜로 써도 된다

앞으로 영국 고전 추리소설 '셜록 홈즈'의 주인공 캐릭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시카고 출신 작가이자 홈즈 전문가인 레슬리 클링어(67)가 '셜록 홈즈'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1859~1930년)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셜록 홈즈' 등장인물을 '공공자산'으로 인정하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루벤 카스틸로 판사는 "코난 도일 재단 측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캐릭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1922년 이전 작품에 그려진 캐릭터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고 말했다.

카스틸로 판사는 "1923년 이후 출판된 10편의 작품에서 홈즈의 성격이 새롭게 그려졌기 때문에 이는 10년 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미기자

謹賀新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한 마디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2014년
훈훈한 말, 기분 좋은 말이 가득한
행복한 한 해 되세요!

2014년 청마의 해에도
SK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뉴스 & 뉴스

롯데마트, 딸기 20% 할인
1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시세보다 20% 가량 저렴한 딸기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8일까지 전 지점에서 달콤한 딸기(500g)는 6900원, 한판 딸기(900g)는 1만20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원화 절상률 G20서 네번째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0일 폐장한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055.4원으로, 전년 말보다 15.2원 떨어져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1.4% 절상됐다. 같은 기간 G20 국가의 통화 가운데 유로화(4.6%), 중국 위안화(2.8%), 영국 파운드화(1.6%)에 이어 절상률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김민지기자

무역수지 '트리플 크라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3년 연속 무역 규모 1조 달러, 사상 최대 수출, 무역 흑자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은 5597억2300만 달러로 2012년보다 2.2% 증가한 반면 수입은 5155억2900만 달러로 0.8%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는 441억94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로써 수출과 무역 흑자는 각각 종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국명기자

이달 33종목 보호예수 해제

●한국콜마홀딩스 등 33개 상장사 주식 1억2200만 주가 1월에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월에 유가증권시장 1900만 주(6사)와 코스닥 시장 1억300만 주(27사)가 매각 제한에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김현정기자

연금복권520 제131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4조	968020
		7조	287940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371837
4등	100만원	각조	44289
5등	2만원	각조	419
6등	2000원	각조	03, 37
7등	1000원	각조	0, 2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구직자 82% "백수탈출, 새해에도 흐림"

취업 준비생 10명 중 8명은 올해 취업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새해를 맞아 기업의 '채용 규모 확대'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력 차별 철폐'(22.6%), '스펙 평가 지양'(19.8%)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82.7%는 내년 취업 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구직자들이 꼽은 현재 취업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 부족'(22.7%)이었다. 이어 '스펙 위주 채용'(21%), '대기업 지상주의'(19%) 등이 거론됐다. /장윤희기자

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납부 가능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현금서비스 명칭 9월부터 '단기카드대출'로 변경

새해부터 바뀌는 금융제도가 많다.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나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대다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오는 4월 1일부터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금융 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위·변조가 어렵고 식별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수표용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10억원 이상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 이미지를 전산 등록하고, 발행 수표와 지급된 수표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위·변조 사고를 예방해 은행의 신인도를 높이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또 올 상반기 중 카드사별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는 연회비 청구 전에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 만기 연장 때 고객이 요구하면 가산금리 변동 사유를 안내하도록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이 개정된다.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변동 때 고객에 대한 고지도 상반기 중 강화된다.

오는 9월부터 '현금서비스' 명칭은 '단기카드대출'로 바뀐다. 일부 고령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이 현금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인해 예금 인출 등으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금서비스 명칭을 바꾸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채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아울러 오는 2월 3일부터 현금입출금기(ATM) 현금 거래 때 마그네틱카드 사용이 금지되고 집적회로(IC)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카드 위·변조로 인한 복제 사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IC카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인테리어 소품에도 "말 달리자"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백화점에서 모델들이 컴퓨터 재봉기에 말 이미지를 입력한 뒤 자수로 새겨 액자와 방석, 가방 등 소품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 '1월 랠리' 전통…미소 날리는 G2

24년간 월별 수익률 비교 결과 평균 2.28%로 1위

연중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달은 1월로 나타났다. 미국의 연말 쇼핑시즌 매출과 중국 춘절의 영향으로 풀이됐다.

1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1990~2013년까지 24년간 1월 코스피의 평균 수익률은 2.85%로 12개월 중 가장 높았다.

월별로 코스피 수익률이 높은 순서를 보면 1월에 이어 ▲11월(2.26%) ▲4월(1.80%) ▲7월(1.78%) ▲10월(1.23%) ▲12월(1.19%) ▲3월(1.03%) 등의 순이었다.

반면 8월(-1.56%), 2월(-1.40%), 6월(-0.88%), 5월(-0.57%), 9월(-0.17%) 등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월 코스피는 전년 미국 쇼핑시즌의 결과가 양호하면 강세를 보였다. 전미소매협회(NRF)가 최근 10년간 집계한 쇼핑시즌 소매업체의 매출 증가율 평균은 3.4%였다.

중국 춘절이 1월에 있느냐, 2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1월 코스피는 출렁거렸다.

1월에 춘절이 있던 2001년, 2004년, 2006년, 2009년, 2012년 등에서는 코스피 수익률이 각각 22.45%, 4.66%, 1.48%, 3.35%, 7.12%를 나타냈다. 평균 수익률은 7.81%였다.

그러나 춘절이 2월이던 해의 1월 코스피 상승 확률(8번 중 3번)은 37.5%로 떨어졌으며 평균 수익률도 -2.36%에 불과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의 뚜렷한 개선에 힘입어 소비 규모가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고, 중국 소비 기대감도 본격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1월 주가 상승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외제차 보험료 평균 11.3% 인상

새해부터 외제차 보험료가 인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제차 자기차량 보험료는 이날부터 평균 11.3% 오른다. 이는 자차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 등급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국산차는 172개 모델 중 34개, 외제차는 34개 중 32개 모델의 보험료가 인상됐다. 국산차 60개 모델의 보험료는 떨어졌다.

외제차 중에서는 크라이슬러, 포드, 인피니티, 푸조, 폴크스바겐, 볼보 등이 기존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자차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올랐다. 국산차인 SM7(2000~3000cc), 카렌스, 뉴프라이드 등은 3등급이 내려가면서 자차보험료가 최대 10% 가량 저렴해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외제차에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자동차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 17%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새해부터 동거 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으면 동거 가족 중 누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저소득 요건(연소득 4000만원)과 차량 요건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Hanwha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이 될 수 없습니다
함께 더 멀리
새해에도 한화는 한결같은 신념으로
대한민국 모두의 따뜻한 내일을 위해
함께 크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시선 사로잡을 'IT 코리아'의 신상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2014 CES'에서 세계 최대 크기의 110인치 UHD TV(오른쪽)와 세계 최대인 105인치 곡면 UHD TV를 각각 선보이며 한국 IT의 저력을 과시한다. /삼성·LG전자 제공

침대보다 크고…화면 곡률 내맘대로

7일 개막 '2014 CES' 삼성·LG전자 세계 깜짝 놀랄 TV 나란히 공개 예정

'고화질' '플렉서블(flexible)' '스마트'로 세계인을 매료시킨다.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2014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한국 IT기업들의 위상을 뽐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삼성·LG전자로 대표되는 한국 기업들이 한발 앞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 덕분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크기의 110인치(약 2.8m) 울트라HD(UHD) TV를 CES에 선보인다. 킹사이즈 침대보다 화면 크기가 큰 이 제품은 풀HD의 4배에 달하는 해상도를 자랑한다.

LG전자도 세계 최대인 105인치 곡면 UHD TV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105인치 UHD 모델은 풀HD 해상도의 5배가 넘는 1100만 화소(5120×2160)에 달한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도 한국 IT 저력을 과시하는 도구가 될 전망이다.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고 구부릴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품 경쟁을 삼성·LG전자가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CES에 가변형 TV 시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변형 TV는 시청자가 리모컨으로 원하는 대로 평면 TV의 곡률을 조절할 수 있는 TV로 디스플레이 패널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감싸고 있는 베젤과 후면 패널까지도 구부릴 수 있다. 덕분에 아직 곡면 TV 기술에 머물러 있는 해외 경쟁사들의 추격을 한방에 따돌릴 수 있는 신무기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모바일 기기와 연결하는 생활가전 분야도 한국 기업들의 기술 전시장이 될 전망이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냉장고·세탁기·오븐·로봇청소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홈챗(HomeChat)' 서비스를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TV를 보면서 말 한마디로 날씨·주식·스포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손가락 움직임만으로 채널을 바꾸고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는 스마트 TV를 선보인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네이버 이해진 '1조클럽' 주식갑부 등극

지난 일년새 6000억 늘어
1위 이건희 5000억 줄어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의 상장사 주식자산이 지난해 무려 6000억원 넘게 불어나 주식가치 '1조원 클럽'에 등극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주식자산이 한 해 6000억원 이상 급감했으나 4년 연속 상장사 최고 '주식부호' 자리를 지켰다.

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에 상장된 1831개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결과 지난해 30일 기준 1000억원대 이상 주식 보유자는 연초보다 2명이 감소한 18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조원 넘는 주식부자는 총 16명으로 연초보다 1명 늘어났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보유 주식 가치가 연초 5085억원에서 1조1763억원으로 6678억원(131.3%) 불어나 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11조3043억원으로 연초보다 6732억원(5.6%) 감소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2010년 5월 10일 삼성생명 상장과 함께 상장사 주식부호 1위에 오른 이래 4년 연속 최고 부호를 지켰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보유 주식자산은 연초보다 2549억원(3.8%) 증가한 6조9368억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주식 가치는 3조1592억원으로 1년간 1302억원(4.3%) 늘어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자산은 2조5684억원으로 연초보다 5798억원(29.2%) 증가했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은 주식자산이 1조2737억원으로 2466억원(24.0%) 늘어났으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주식자산도 1조7186억원으로 2003억원(13.2%) 불어났다.

연예인 출신 주식부호 중에서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주식 가치가 각각 1941억원, 1856억원으로 연초보다 각각 9억원, 371억원 줄어들었다.

/김현정기자 hjkim1@

분실·파손 부담금 줄인 '올레폰 안심플랜2' KT는 휴대전화 분실 및 파손 시 고객 부담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대폭 인하한 '올레폰안심플랜 시즌2'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KT 제공

직장인 '득의지추' 구직자 '교룡득수'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 눈길

직장인의 새해 사자성어로 '득의지추(得意之秋)'가 꼽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구직자와 직장인 27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해 소망 및 각오를 축약하는 사자성어'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응답자의 43.6%는 '바라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회'란 뜻의 사자성어 득의지추를 선택했다. 이어 남의 시선 대신 소신껏 살겠다는 의미의 '특립독행(特立獨行)',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겠다는 '배암투명(背暗投明)'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한편 취업준비생 응답자의 사자성어로는 좋은 기회를 얻길 바란다는 '교룡득수(蛟龍得水)'가 1위에 올랐다. /장윤희기자 unique@

'LTE 선택형 요금제' 통신비 월 1만원 줄듯

올해 바뀌는 이통 제도들

올해부터 이동전화 가입비가 2013년 대비 50% 인하되고 스마트폰에 도난 방지 기술 탑재가 의무화된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이통 3사에서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가 자신의 통화 패턴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정액요금제 이용자 중 음성통화가 적거나 데이터 이용량이 적은 이용자는 각각 데이터나 음성 통화에 맞춘 선택형 요금제 사용시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이번 선택형 요금제 출시로 월평균 1만원 이상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동전화 가입비도 전년 대비 50% 인하된다. 미래부는 2015년 말까지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기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700억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단말기 도난 등을 사전 방지하고 분실·도난 단말기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킬스위치(Kill Switch)' 기능도 올 상반기부터 신규 단말기 탑재가 의무화된다. 킬스위치 기능은 타인이 분실·도난 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원격 잠금·삭제 등의 제어가 가능한 기능으로,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 단계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펌웨어에 설치하거나 운영체제(OS)상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경제 살아나도록 투자 늘려달라

경제부처·재계 신년사

희망의 2014년이 개막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무역 1조 달러 3년 연속 달성 ▲사상 최대 수출액 ▲사상 최대 흑자 등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아직 불확실하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부처 장관들과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단체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장기침체·도약 분수령…'선우후락'의 자세로

■ 현 오 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갑오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고용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추가경정예산, 부동산 대책, 투자 활성화 대책 등 정책 패키지 추진 결과 경기 회복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완화 축소 등 세계경제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내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은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이런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2014년은 우리나라가 장기 침체에 빠지느냐 선진경제로 도약하느냐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를 선진 경제 궤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공고히 하는 한편 경제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임하겠다.

첫째,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둘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 마케팅 노력을 강화하겠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를 위해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

항상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길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긴다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자세로 경기지표뿐 아니라 국민의 체감경기도 나아질 수 있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모두 체감할수 있게 창조경제 뿌리 내리는 해

■ 최 문 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올해는 그간 발표된 창조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2014년 미래부의 정책 운영 방향을 '국민 생활 속에 뿌리 내리는 창조경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공간까지 확대하겠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3D프린터 같은 공작기기를 이용해 상상해오던 것을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과 예비 창업자, 투자자, 멘토 등이 서로 협업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창업지원형 공간을 전국에 50개소 이상 조성하겠다.

또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 추진 체계를 갖춰 가겠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와 5개 경제단체에서 8개 부처와 8개 경제단체로 확대해 민·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해가겠다.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주역이 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동전화 가입비 단계적 폐지, 알뜰폰 활성화 등 소비자 중심의 요금제 개선을 추진하겠다.

또한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과학기술을 육성해가겠다.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도록 기초연구 지원을 효율화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향후 10년 성장엔진 마련

■ 윤 상 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올해도 우리 경제·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신흥국 침체 등으로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외국인 투자 위축, 금융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도 안심할 수 없고, 원고·엔저 흐름의 본격화로 수출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새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기 회복의 불씨가 온전히 타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 향후 10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내겠다. 자율 주행 자동차 등 세계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15대 창조경제 산업 엔진을 육성하고, 신발·섬유 등 이업종 간 융합, 정보통신기술(ICT)과 전통·주력산업과 융합도 추진하겠다. 수출도 중계·가공무역, 복합 시스템 등 새롭고 창조적인 수출산업을 육성해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겠다.

또 경기회복의 온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투자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겠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기업이 망설임 없이 투자에 나서고, 지역희망 이음 프로젝트 등으로 투자가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밖에 모든 기업이 함께 커가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산업혁신 3.0 등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성과공유제 확산,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산업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

물가·금융 모두 안정되게 일관성 있게 정책 이끌것

■ 김 중 수 한국은행 총재

새해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전환기로 후일 기록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질곡에서 미국 등 선진 경제가 서서히 벗어나는 조짐이 나타난다.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 주류인 시대에서 예전으로 복귀할지 또는 새로운 형태의 수단이 계속 개발될지 기로에 설 것이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됐다. 새해 한국 경제의 과제로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 소비와 투자 진작 등을 꼽고 정책 초점도 여기에 맞춰질 것이다. 통화·신용 정책도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런 정책 기조와 일관성을 갖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의 후생 증진과 고용 확대를 위해 내수 확충은 필요하다.

새해에는 한국은행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선제적인 안내 확대 등을 오랫동안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최근 양적완화 축소 결정과 관련,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양적완화 축소의 규모와 속도, 금리 추이가 향후의 관건이다. 지난 1년간 한은의 성과로 통화스와프 확대를 비롯한 원화의 국제화 시동, 골든북 발간, 바젤III를 비롯한 국제 금융 규범 수립 과정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저인플레이션은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의 하향 추세에 주로 기인하고, 정부의 무상보육 등도 부분적인 원인이며 통화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경제 주체들에게 이를 잘 인식시켜야 한다.

기업은 준비 끝났으니 밀어달라

■ 허 창 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위해 적극 노력

올해 우리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요즈음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월에 소치 동계올림픽, 6월에 브라질 월드컵,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 등 세계적인 이벤트가 개최된다. 이런 세계적인 축제도 부분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낙관만 하기에는 우리 경제에 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와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환경이 수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산가치의 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 민간 소비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 우리 기업의 경우 매출은 늘지만 이익이 감소하는 외화내빈의 현상이 우려된다.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집단이기주의, 갈등,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등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올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성장의 불씨를 잘 살려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불안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체에 빠지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을 잘 극복하면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우선 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인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순한 양적 확대뿐 아니라 채산성을 감안한 내실 있는 성장에 힘써야 한다. 국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도 회복돼야 한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통한 소비 활성화, 내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등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경제 주체들이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랫목에 온기가 윗목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 및 동반성장 활동에 노력하겠다.

■ 박 용 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회복 열차'에 올라탈 마지막 기회

2014년 새해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될 전망이어서 우리 경제도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기 회복의 성과를 온전히 향유하고 사회 전반에 회복의 온기가 퍼지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대외적으로 엔저 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산업 부흥과 신흥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 입지가 도전받고,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와 제조업 경영환경 등이 경제 활력 회복에 아직 부담으로 남아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올해는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경기 회복기를 선점하려는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 경쟁 파고를 이겨낼 준비 기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올 한 해가 경제 회복 열차에 오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점검하고 실천해가야 한다.

중요한 시기를 맞아 우리 기업은 소명감을 갖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선배 기업인은 전후의 폐허에서 철강 산업을 일으키고 선진국 영역인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산업에 도전해 오늘날 풍요사회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금도 실패와 역경을 극복하고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강소기업이 적지 않다. 세계적 석학들도 극찬했던 한국 기업가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다시 살려 경제 회복과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화답해야 한다.

어떤 경제 환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근원적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해마다 완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시장 트렌드도 달라지고 있다. 시대흐름을 놓치지 않고 앞서가려면 투자와 연구·개발(R&D) 확대 등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만으론 부족하다. 새로운 시대에 적자생존할 수 있도록 거대 환경 변화를 통찰한 후 사업을 재정의하고 인재 양성과 기업시스템 재구축에 힘써야 한다.

거센 풍파를 이겨내려면 뿌리를 깊고 바르게 하고, 오래 영속되는 집을 만들려면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듯이 우리 모두 '정본견초(正本堅礎)'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희망한다.

■ 김 기 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기도 스스로 성장할 자생력 길러야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세상은 사막화가 진행되고 태풍이 없으면 바닷물은 썩듯이 성장 부진이라는 시련의 끝에서 우리 경제가 조금씩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도 이런 우호적인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우선 과감히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 나가야 한다. 세수 부족과 복지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투입은 머지않아 한계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중심의 성장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중소기업도 기술 개발과 성숙한 기업 문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창조경제 시대의 성장 공식일 것이다.

시장에 대한 새로운 안목도 요구된다.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기조가 구조화되는 내수 시장에만 집착하면 중소기업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넓어진 세계경제 영토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해 신발끈을 고쳐 매고 다시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다. 중소기업 현장의 고민이 있는 그대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제민주화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해 입법화된 다양한 제도들이 현장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시행령 등에 잘 반영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내수 시장처럼 편리하게 누빌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글로벌 정책 마련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

중소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가겠다. 모처럼 불어오는 경기 회복의 훈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투자 동력 확보를 위한 각종 세제 개선에 힘쓰겠다.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 이 희 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사정 상생의 길 찾기위해 힘 모아야

올해도 글로벌 경제 사정이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개시했고 신흥 개발도상국의 성장 둔화, 과도한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년 연속 2%대 성장률에 비해 다소 높지만, 여전히 우리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실업 문제의 해결과 경기회복의 온기가 퍼져나가기 어려울 듯하다.

올해 노사관계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의 여파로 올해도 노사갈등 요소는 산재해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과거분의 기업 부담을 덜게 된 점은 불행 중 다행이나, 향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모적인 노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근로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소모적인 소송 대신 노사는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정부도 기업이 활기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 근로 형태의 다양화 등 우리 노동시장 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메가톤급 사안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여느 때보다 노·사·정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4000달러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기업이 그 문턱을 넘어서고 명실상부한 선진 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도록 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 수립과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똑똑한 소비·쏠쏠한 재테크 정보 가득

국내 주요 신문사들이 몰려있는 '대한민국 언론의 중심' 광화문 거리에서 한 시민이 메트로신문의 신년 특별호 지면을 유심히 읽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2014년 메트로신문 이렇게 바뀝니다

메트로신문이 새해를 맞아 확 달라진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메트로신문은 올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메트로신문은 특히 경제 영역을 대폭 강화함은 물론 행복사회와 창조경제를 위한 기획도 꾸준히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컨슈머 리포트 · 소비자 고발

독자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컨슈머 리포트'와 '소비자 고발' 코너를 마련합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제품을 먼저 써본 소비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단점과 함께 장점도 알려주는 컨슈머 리포트와 달리 소비자 고발은 제품의 단점을 꼼꼼하게 짚어주는 코너입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를 맞아 재테크가 더욱 절실해진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증권·부동산·금융 콘텐츠도 확충합니다.

공정사회 · 이슈 진단

메트로신문의 이번 지면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획·분석 기사가 대폭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산업 기사 비중을 확대한다는 큰 틀 아래 연중 기획 '공정사회로 가는 길'을 게재합니다. 지난해 한국 사회는 남양유업, 이마트 등 유통 대기업들을 필두로 한 '갑의 횡포'가 화두였습니다.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1년 내내 이슈화 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국내 대기업과 하청 업체의 갑을 관계에서부터 편의점 사장과 아르바이트 사원의 불편한 진실은 물론 사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사례를 추적함으로써 공정사회를 위한 해묵은 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중·단기 기획 기사를 월 1회 이상 제공하며 '이슈 진단'과 같은 심층 해설·분석 기사의 노출 빈도를 늘립니다.

한류 콘텐츠 · 27개국 송출

메트로신문이 발행되는 27개국에 기사를 송출합니다.

K-팝, K-게임, K-드라마 등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매력덩어리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믿을 만한 기사를 제공하는 매체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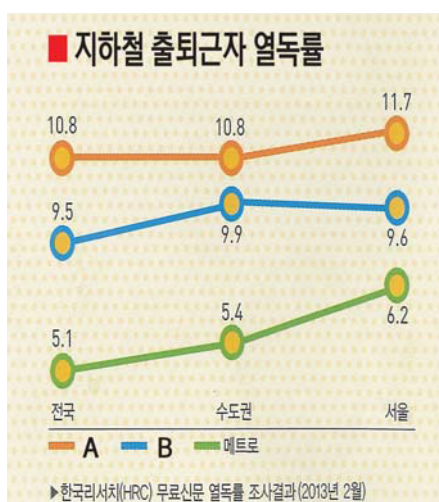
하지만 메트로신문이 국내에서 작성한 '따끈따끈한' 한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해외 메트로신문에 전송할 수 있게 돼 메트로신문은 물론 한류 콘텐츠 종사자들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독률 전국 8위 '저력의 매체'…대학생 선호도는 6년째 1위

국내 최대 무료 종합일간지 메트로는 2002년 창간 이래 여전히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매체 영향력을 평가하는 항목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열독률을 따졌을 때 메트로는 전국 70개 종합지를 통틀어 당당히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메트로는 2.3%로 8위에 랭크됐다. 서울·경기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 배포만으로 이 같은 성적을 올렸다는 점에서 메트로의 진가가 재차 확인된다.

열독률 조사를 지하철 출퇴근자로 한정할 경우 메트로는 빅 3로 수직 상승한다.

같은 기간 한국리서치(HRC) 열독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트로는 6.2%(이하 서울 기준)로 A신문(11.7%), B신문(9.6%)을 추격하고 있다.

아울러 메트로는 젊은 독자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다. 한국대학신문이 지난해 10월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 언론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메트로는 37.3%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를 했다.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1년부터 계속해서 30%대 후반대의 선호도를 유지하며 정상의 자리를 6년째 지키고 있다.

한편 글로벌 27개국 220여 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는 2006년 기네스가 '세계 최대 글로벌 신문'으로 공식 인증한 바 있다.

/박성훈기자

네이버 타고 방문하니 '뉴스 신세계'

확 바뀐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클릭할수록 터치할수록 흥미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가 갑오년 새해를 맞아 독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간다.

올해 4월 초까지 홈페이지 1차 개편을 진행한 메트로신문은 이번 2차 개편을 통해 기존 홈페이지 도메인뿐 아니라 새롭게 온라인을 강조한 도메인(www.emetro.co.kr)으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1차 개편에서 부족했던 뉴스 집중도를 개선했고 메트로신문만의 특화된 기획 코너 집중도를 높여 독자들에게 보다 풍부한 볼거리 제공에 주력했다.

아울러 메트로신문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줌 등 각종 포털사이트 뉴스 제공을 통한 온라인 강화로 '제2의 도약'에 나설 방침이다.

'여론의 장' 핫이슈·알찬 요일별 콘텐츠·연예 섹션 등 주요 뉴스 포털에도 제공되는 고품격 콘텐츠 풍성해

◆경제·연예·스포츠·이벤트 등 다채로운 정보 제공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개편의 주요 핵심은 다양한 정보를 얼마나 독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느냐에 있다.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주요 기사를 집중 배치했고 사회적으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핫이슈' 코너에서 소개하며 여론 형성의 장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존 메트로신문의 강점인 연예, 스포츠 섹션은 특화형 페이지로 제작해 다양한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하며 독자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도록 노력했다.

이벤트 페이지 역시 메트로신문 홈페이지의 25만 가입자를 기반으로 뮤지컬 초대 등 각종 문화 이벤트를 진행해 독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메인 페이지 상단에 노출하며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요일별 콘텐츠의 메인화면 중앙 집중 배치

이번 개편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 중 하나는 각종 요일별 콘텐츠의 메인 페이지 중앙 집중 배치다. 현재 메트로신문은 ▲금융가 사람들 ▲알짜기업 탐방 ▲투잡 체험기 ▲재미 따라 맛 따라 ▲필름 리뷰 ▲메트로칼럼 등 요일별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금융가 사람들은 금융 쪽 인물 중 화제가 될만한 애널리스트 및 전문가를 독점 인터뷰해 독자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알짜기업 탐방은 '신의 직장' 못지않은 조건을 갖추고도 구직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엄선해 소개하는 코너다.

투잡 체험기는 부업 또는 창업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기자가 직접 체험해 독자에게 소개하는 코너이며 재미 따라 맛 따라는 전국 각지의 축제와 관광지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름 리뷰는 매주 한 편씩 개봉 영화의 특징을 분석해 소개하며, 메트로칼럼은 7명의 외부 필진 칼럼과 9명의 데스크가 각종 이슈에 대해 진단하는 '뉴스룸에서', 일선 취재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듣고 보고 느낀 점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기자수첩' 등을 한데 묶어놓은 기획 섹션이다.

◆접속기기 따라 레이아웃 바뀌는 반응형 웹

반응형 웹을 홈페이지 메인에 적용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반응형 웹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데스크톱 등 디바이스별 가로 크기에 반응해 레이아웃을 최적화시킴으로써 최적의 상태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메트로신문의 경우 일반 데스크톱에선 메인화면 오른쪽 측면에 '임의택의 차차차(車車車)' '글로벌 이코노미' '시크릿노트' '짠순이 경제학' 등 다양한 코너가 보이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접속할 경우 메인화면 하단에 이 같은 코너가 배치된다.

◆실시간 키워드·최신 기사 메인페이지 노출

메인화면 상단 검색창 아래 실시간 키워드를 노출해 주요 이슈를 클릭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독자들은 주요 키워드를 클릭하면 관련 기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메인화면 하단에는 ▲경제 ▲산업 ▲IT·과학 ▲국제 ▲라이프 ▲건설·부동산 ▲금융 ▲정치 ▲사회 등 각 섹션별 최신 기사 3개씩을 보여줌으로써 뉴스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포토뉴스, 테마형 갤러리로 개선

기존 포토뉴스가 단지 실시간 이슈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면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 이를 테마형 갤러리로 개선했다.

예를 들어 '철도 파업'이라는 이슈가 있으면 홈페이지 상단의 포토뉴스를 클릭하고 들어갈 경우 테마갤러리에서 철도파업을 주제로 이와 관련된 사진만을 묶어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형태다.

특히 포토뉴스는 핀보드 스타일의 소셜 사진 공유 웹사이트인 핀터레스트 형태로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사진에 대한 가독성을 높였다. 향후 모바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 같은 핀터레스트 형태의 기사 보여주기가 독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보고 뉴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을 전망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연내 디바이스별 맞춤형 홈페이지 제공

이번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2차 개편에 이어 독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한 3차 개편도 함께 진행 중이다.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춤형 페이지 제공

스마트 시대에 맞춰 모바일 및 태블릿 PC, 데스크톱 등 각 디바이스별 맞춤형 페이지를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차 개편에서 적용한 반응형 웹 기능과 포토뉴스에 적용한 핀터레스트 형태를 강화함으로써 각 플랫폼에서 특화돼 볼 수 있는 맞춤형 페이지를 제작해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개발에 들어갔으며, 연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토·캠핑 등 특화 페이지 추가 개설

메트로신문은 이번 2차 개편에서 연예·스포츠 섹션의 특화 페이지를 개설한 데 이어 자동차(오토), 캠핑 등 독자들의 니즈가 많은 페이지를 별도 특화 페이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스타 인터뷰' '필름리뷰' 등 인기를 바탕으로 한 연예 섹션과 '태극전사' 코너 등을 앞세운 스포츠 섹션이 별도 특화 페이지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임의택의 차차차(車車車)' '아웃도어 특집' 코너 등 독자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 오토 캠핑 섹션 역시 특화 페이지로 제작, 볼거리를 강화하고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심층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재영기자

2014년 새해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4년 올 한해도 고객과 함께,
고객 입장에 서서
고객을 항상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희망했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풍요롭게, 좀더 넉넉하게

고객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오년(甲午年) 새해
고객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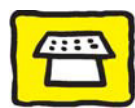
2014
갑오년
동양증권(주)
삼성증권
SAMSUNG
한화증권
현대증권

신년 부동산·주식 전망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모두 약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올해는 부동산 경기 개선을 시작으로 '가계 여유자금 증가→주식형펀드 유입→투신의 주식 매수에 따른 증시 상승'이라는 선순환이 기대된다. 특히 미국이 신흥국의 자금 유출이 불가피한 출구전략을 시작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경기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자금 흐름에 따른 새해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향방을 가늠해본다.

주택시장 침체 터널의 끝 보인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에 빠져있던 부동산 시장이 세계경제 회복 기대감과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 힘입어 새해에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본격 회복 국면으로 접어드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인천 연수구 동춘터널에서 바라본 송도국제도시에 빛줄기가 비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전문가 "취득세 영구인하 등 거래 회복 단초 중소형 인기 지속… 전셋값 상승여력 높아"

금융위기 이후 침체 일로를 걷던 부동산 시장이 비로소 어두운 터널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영구 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부동산 법안이 잇달아 통과된 데 이어, 2013년 마지막 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까지 폐지되면서 새해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회복 분위기 속 전세난과 연 1%대의 초저금리 공유형모기지 출시가 맞물리며 주택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전셋집을 찾지 못한 세입자들이 공유형모기지를 이용해 매매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크기와 지역에 따른 차별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금융 지원이 집중되고 자금 부담도 덜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의 인기가 당분간 계속된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책과 실수요자들의 소비심리 등을 감안할 때 중소형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곳으로는 서울 강남권이 꼽혔다. '강남'이라는 상징성과 희소성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위례신도시 추가 분양 물량을 비롯해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 등 강남 일대 지역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전세 시장은 올해도 상승 여력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물건이 많아 전세 물건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수요자들의 높은 전세 선호와는 달리 공급이 달려 가격은 계속 오를 전망"이라며 "하지만 입주 물량 등을 감안해 작년보다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 확대 및 민간임대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단기적으로 세입자가 매매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펼쳐 수요를 줄이되,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급은 늘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 요인이자 동시에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양적완화 축소를 경기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대로 금리 상승이라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새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선정했다.

이들은 또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년 말로 종료된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 연장을 요구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 전문가 5인이 말하는 올해 부동산 시장 향방

구분	김연화 기업은행 팀장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임채우 국민은행 팀장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
새해 전망	-소폭 가격 상승 -중소형·신규 분양 위주로 관심	-상반기 약세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폭 확대	-거래 시장 온기 -시장 회복 속도 빨라질 것	-기존 주택보다 분양 시장 활기	-중소형 위주로 회복 -지방 입주량 폭증으로 약세
긍정 변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미국·유럽 경기 회복 기대감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 제거	-경기 회복 기대감 -공유형모기지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완화	-경기 회복 가능성 -전세난에 따른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집값 바닥 인식 확산 -경기 회복 기대감	-경기 회복 기대감 -6·4지방선거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완화
위협 요인	-금리 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금리 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세제 혜택 일몰	-금리 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경제	-금리 인상 가능성 -임대차 시장 불안
유망 지역	-강남 재건축 -전세가율 높은 지역	-강남 재건축 -위례신도시	-강남 재건축 -2기신도시	-강남 재건축 -위례신도시 -세종시·혁신도시	-강남·위례신도시 신규 분양
전세 전망	-전세난 지속 -상승폭 둔화	-전세난 지속 -상승폭 둔화	-전세난 지속 -지방을 중심으로 상승폭 둔화	-예년 수준의 상승세	-전세난 지속 -상승폭 둔화
전세난 완화안	-공공임대 확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요구권 법제화	-공공임대 확대 -전세 수요 줄이기 위한 매매 전환	-공공임대 확대 -전세 수요 줄이기 위한 거래 활성화	-공공임대 확대 -전세 수요 줄이기 위한 매매 전환 -민간임대 활성화	-월세소득공제·월세대출 보증 등 임차 시장 개편 -민간임대 확대
주택시장 활성화안	-공유형모기지와 같은 저금리 상품 확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연장	-대출규제 완화 -장기대출 전환	-종합부동산세 과표 상향을 통한 고가 주택 보유자·다주택자의 거래 유도	-양도세·취득세 등 세제 혜택 연장 -DTI규제 완화 -공유형모기지 확대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혜택 연장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전세·월세 수요 매매 전환

'안갯속 증시'… 선진국 경기회복 최대 변수

올해 국내 증시는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이 얼마나 빠르게 자리 잡느냐와 국내 자금이 돌아올 것인가에 달렸다. 코스피가 장기 박스권을 벗어나 추가 상승하려면 외국인의 '사자'세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KDB대우증권은 2014년 국내 증시 예측에 '각자도생(가는 길이 다르다)'이란 표현을 썼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 간 경제 상관성이 떨어졌으며 앞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더라도 신흥국까지 훈풍이 불어오지 않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허재환 대우증권 연구원은 "1~2월에는 미국이 재정 균형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시퀘스터 시행으로 남미, 아시아 등의 생산성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국내 증시는 내수와 수출업종이 모두 부진하면서 이중고를 겪을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 동향을 알려주는 물가 예후가 좋지 않고 선진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 역시 어느 것 하나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최광혁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2011년 8월 정점(4.7%)을 찍은 소비자물가는 계속 하락해 지난해 10월 0.7%까지 내려앉았다"며 "소비자물가지수는 국내 내수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14년 만에 0%로 떨어진 지수는 저물가 장기화에 내수가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음을 알려준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한국의 수출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로 0% 안팎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이 얼마나 진행될지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펀드런' 수준의 자금 이탈을 보인 국내 자금이 다시 돌아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윤남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단행으로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사자'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국내 자금 유입이 없으면 코스피가 크게 상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올해 물가와 금리가 오르면서 펀드 등 증시에 국내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코스피지수 사상 최고치인 2232를 넘는 모습이 나타나야 국내 투자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1@

신년 통신·유통·산업 전망

60년 만에 푸르른 말이 뛰노는 '청말띠의 해'를 맞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이라는 우군을 만나 수년간 침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따른 선진국 금리 인상 가능성, 일본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여파, 가계부채 위험 등 헤쳐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IT·게임·유통 분야의 전망을 통해 2014년 한국 경제의 가능성을 짚어본다.

이통3사 두배 빠른 LTE '속도 대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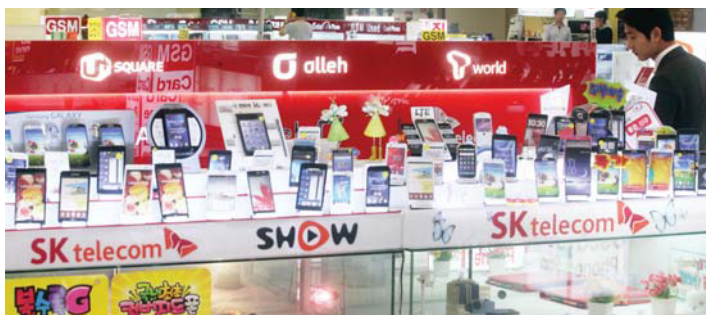
LTE 비중 증가로 매출 늘 듯… 보조금 규제 '난관'

올해 통신 시장은 속도 전쟁과 보조금 이슈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LTE-A, 광대역 LTE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경매가 핵심이었다면 올해는 7월 전국망 구축으로 이동통신 3사 간 속도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광대역 LTE 서비스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통 3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올해 3월 광역시, 7월 전국망 구축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올 7월이면 두 배 빠른 LTE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가입자가 5400만 명에 달하기 때문. 이는 국민 1인당 1명 이상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포화된 시장에서 올해는 전체 가입자 상승보다는 LTE 비중이 증가하며 매출 확대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올해 이동통신 시장의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매출은 전년(23조4000억원) 대비 5.6% 성장한 2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조금 논란도 통신 시장의 최대 핵심이다. 지난해 1월 과다 보조금 살포로 인해 영업정지로 새해를 맞은 이통 3사는 올해도 과징금으로 새해를 맞았다. 과징금 규모도 사상 최대인 1064억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추진을 모색했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으로 국회 통과가 물거품됐다. 결국 올해 '단통법' 국회 통과를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보조금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에 따라 통신 시장이 긍정적이 될지 부정적이 될지 가름될 전망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유통 키워드는 B·E·Y·O·N·D '해외 직구' 열풍 올해도 계속

국내 유통업계에 있어서 2013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업계 전반의 각종 규제와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불황 등이 겹치면서 온라인·편의점·슈퍼마켓 등은 6~11%대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형마트·백화점 업계는 각각 1.5%와 2.9%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그룹 미래정책연구소는 2014년 업계 전반에 걸쳐 ▲민간 소비심리 회복 업체의 업체 다변화 ▲불황기 마케팅 역량 강화 등에 따라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대형마트는 3.3%, 백화점은 4.3%, 슈퍼마켓 6.2%, 편의점 9.7%, 온라인 12.6%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사항을 반영해 이 연구소는 2014년 국내 유통업계의 키워드로 탈경계화를 의미하는 '비욘드(BEYOND)'를 제시했다.

이 단어는 경계를 넘어선 탈국경화(Borderless), 탈장소화(Everywhere), 탈연령화(Young&Old), 탈채널화(On&Off), 탈시장화(New Markets), 탈시간화(Day&Night) 등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해외 직접 구매를 포함한 내국인의 해외 소비와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소비 급증 등 국경을 넘나드는 소비가 성행하고, 특정 유통 업태가 타깃으로 하는 마케팅 대상 연령층이 편의점과 온라인 업태는 기존 젊은층에서 중장년층까지, 백화점은 중장년층에서 젊은층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복합쇼핑몰 등 과거 수동적인 시장을 넘어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가치 주도 신시장 등장과 특정 채널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온·오프라인 등 모든 채널을 이용해 쇼핑하는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기존 오프라인 업태의 영업 시간에 국한됐던 쇼핑 시간대가 온라인몰의 확산으로 야간 시간대로 확대되는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영일기자 prms@

경상수지 23개월째 흑자행진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가 95억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흑자 행진은 23개월째 이어졌다. 28일 부산 감만부두에서 수출 화물이 선적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입이 수출보다 높은 증가세… 무역 흑자 줄어들 듯

4년 연속 무역 규모 1조 달러 시대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수출이 5955억 달러, 수입이 562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각각 6.4%,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일 밝혔다.

선박·무선통신기기·자동차·일반기계·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출은 4% 이상 증가하고, 자동차 부품·컴퓨터·가전제품·섬유·철강·반도체 등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 수출은 중국·북미·아시아가 밝고 일본은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유가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국내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4년 연속 무역 규모 1조 달러 돌파와 사상 최대 수출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하지만 무역흑자 규모는 지난해 442억 달러보다 24%나 줄어든 335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경기 회복, 중국의 성장세 지속 등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 전망 등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라며 "다만 미국 출구전략, 신흥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 보호무역주의 강화, 엔저 및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대외 여건이 순탄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모바일 게임 복고 바람 거세다

모바일 전성기를 맞은 2014년 IT 업계의 또 다른 주역은 모바일게임이다. 2012년부터 대중화의 막을 연 모바일게임은 지난해 성숙기를 거쳐 올해 클라이맥스에 도달할 전망이다.

올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는 복고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 히트작 CJ E&M 넷마블 '모두의 마블'(사진)과 NH N엔터테인먼트 '포코팡'에서 보듯이 누구에게나 익숙한 게임 환경은 모바일게임의 생명과 같다.

복잡한 전략과 스킬이 필요한 마니아 위주의 온라인 PC게임과 달리 모바일은 아날로그 감성을 살린 대중성이 특징이다. 스마트 디바이스 발달도 모바일게임 대세론을 굳히게 할 것이다.

모두의 마블은 전통 보드게임 '블루마블'에서 착안한 게임으로 게임 이름처럼 '모두'가 즐길 수 있다는 주제로 출시 28일 만에 1000만 내려받기 기록을 세웠다.

포코팡은 같은 색깔 블록 연결하기란 클래식 퍼즐게임으로 출시 열흘 만에 내려받기 200만 건을 돌파했다. 참고로 올해 첫 모바일게임 1위는 CJ E&M 신작 '행복한 피아니스트'로 7080 명곡을 아날로그 피아노 건반 게임으로 재현했다.

카카오톡 전용 게임 플랫폼인 '카카오 게임하기'는 올해도 강세일 전망이다. 1일 현재 구글플레이 인기 무료 앱 상위 10위 모바일게임 중 90%가 카카오 게임하기일 정도다. 이용자의 인맥을 기반으로 한 공동 게임과 아이템 공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모바일게임의 마케팅 포인트이기도 하다.

/장윤희기자 unique@

"해양수산 교육기관 일류 뱃고동"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신년 인터뷰

2013 계사년의 끝자락인 지난달 23일 부산시 영도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찾았다. 2014 갑오년을 맞는 연수원의 새로운 비전과 각오를 듣기 위해 그를 만났다.

원장실에 들어서자 반갑게 본 기자를 맞는 그의 얼굴에는 강인한 듯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중후한 목소리로 착석을 권하며 따뜻한 차와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스스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해양 강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하며, 연수원의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션폴리텍 해기사 및 창조경제를 위한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정형택 원장은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젊은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전 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견인할 좋은 인재들이 연수원의 문을 두드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양플랜트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내실을 다지고 책임과 소통의 경영을 펼쳐 세계 일류 해양수산 전문 교육기관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우리 연수원은 인화를 바탕으로 한 노사 문화를 정착해 맞춤형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원장실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간다는 것은 아래 사다리 칸을 밟지 않고는 위로 오를 수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소개 및 하는 일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준정부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해양 종사자 교육기관이다. 1965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무려 100만명이 넘는 선원·해기사의 양성과 국제 협약에 따른 교육·훈련을 담당해왔다.

주요 사업은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과 정부로부터 수탁한 해기사 국가기술자격검정, 선원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 지원 업무, 해양수산 기술 교육에 관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 해운·항만 및 어업 기술의 연구·개발, 해양구조물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CEO로서 경영철학은?

▲국가의 해양수산 인재 육성 정책을 기초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적 표준 교육 시스템의 구현을 통한 세계 최고의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기관으로서의 명성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소감은?

▲원장 부임 첫해에는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인적자원 컨소시엄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획득했다. 2013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인간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발족한 휴마린포럼의 초대 공동대표에 선출돼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후 정부 방침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2018년까지 인재로 인한 해양사고 30% 감소'라는 도전적 목표를 수립해 기관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 제시와 높은 추진 의지로 국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션폴리텍 해기사에 대한 소개와 향후 발전 계획은?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은 해기사가 되고자 하는 비해양계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해기 이론교육, 현장 실무 중심 실습교육을 통해 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해기 인력으로 배출하는 과정이다. 외항상선·원양어선·내항상선의 3개 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신규 취업자 및 전직 희망자 등 취업이 절실한 육상 인재들의 관심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리더십과 실무교육 등 예비해기사로의 전문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런 노력으로 외항상선·원양어선의 경우 2년 연속 취업률 100% 달성을 비롯해 정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상(2010년), 국무총리상(2011년)을 수상한 바 있다.

향후 해기사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실습 교육 확대 및 선종별 직무교육 등 전문 교육을 강화해 업계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개발과 고용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창조경제를 위한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계획은?

▲전 세계 해양플랜트 산업의 성장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인력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산업 인력 양성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해양플랜트 운영 인력은 해양플랜트 운영 경험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이에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현재 쉬고 있거나 다른 직종에 근무 중인 고급 해기사들에게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해양플랜트 분야 안전 교육 및 직무 교육을 시행해 탐사, 설계, 건조, 운송, 설치, 운영 및 해체 인력 동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부터 이미 단계적으로 해양플랜트 안전 교육 64개 및 해양플랜트 직무 교육과정의 개발 및 해양플랜트 운영 인력 양성 교육을 시행해 연수원을 기존의 해기 교육은 물론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용당캠퍼스에 해양플랜트 인력개발센터(ODC) 설립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북극해 개발을 위한 연수원의 준비 사항과 추진 계획은 어떠한가?

▲북극해 해빙의 가속화로 북극 지역이 보유한 미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 각국의 관심과 북극 진출 계획이 가시화된 상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극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빙하 해역 항해사를 의무적으로 승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과하는 북동 항로에서 빙하 해역 도선사와 항해사 승선을 강제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수원은 2011년 12월에 러시아 마카로프해양대학에 교수진을 파견해 빙하해역 항해사 교육과정을 이수케 하고 2012년 2월에 러시아 마카로프 해양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극지 해역 운항 선박의 승무원과 빙하 해역 항해사를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을 연구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북극해 항행 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4년 10월 극지 선원과 빙하 해역 항해사 양성을 목표로 관련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인증, 북극해 운항 승선실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연수원은 국내 해양수산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본연의 임무는 물론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해양플랜트 및 북극해 전문인력 양성 등 새로운 블루오션 분야에 도전해 창조경제를 이룩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해양 부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수원의 노력이 세계 일류 해양수산 전문 교육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본다.

글·사진=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정형택 원장은 한국해양대학을 졸업, 해군 장교로 2년 복무했다. 천경 해운(주) 산코 해운회사(SANKO LINE)에서 승선 근무와 육상 근무 경험을 쌓은 후, 1985년 교통부 사무관으로 임관한 이래 줄곧 해양 안전, 환경 관리, 선원 업무 및 국제해사기구(IMO) 파견관 업무 등을 맡아오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2012년 '제7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으로 부임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본원 전경(위). 교육생들이 선박 모의조종 시뮬레이터(SHS)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내실 강화·소통 경영 실천
인화 바탕 노사문화 정착
해양사고 30% 감소 '온힘'

⋮

선원·해기사에 맞춤 교육
해양플랜트 전문가 양성
창조경제의 견인차 될 것

유명 연예인들 디스크질환 고주파로 10분이면 끝!

초기 증상땐 도수운동 치료…중기 및 말기 환자는 10분정도 고주파

최근 '불후의 명곡' 및 '히든싱어' 우승으로 화제가 된 국내 최고 보컬 가수 휘성(사진 왼쪽)은 군 복무 중 악화된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군 제대 후 방송 활동 복귀가 어려웠다. 하지만 방송 활동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에 디스크질환 치료를 위해 강남초이스병원을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조성태(오른쪽) 병원장은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통증 완화와 치료를 위해 국소 마취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10여 분간의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시술 후 탈출된 추간판이 수축되면서 제자리를 찾았고 이에 휘성은 상태가 호전돼 시술 당일 퇴원할 수 있었다. 이후 휘성은 곧바로 방송 활동에 복귀했으며 현재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회복했다.

또 휘성 시술 직후 배우 윤계상도 휘성과 비슷한 증상으로 강남초이스병원을 방문했다. 잠자리에 들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던 윤계상은 휘성과 마찬가지로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말끔히 해소돼 방송 활동 및 영화 촬영을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수 김종국, 배우 이광수, 가수 겸 배우 알렉스, 가수 개리, 방송인 지석진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고주파로 디스크질환을 완치한 바 있다.

이처럼 3년 전부터 강남초이스병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와는 다른 진화된 치료법이다. 일반적인 디스크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인 치료법인 것이다.

◆현대인의 고질병, 목·허리 통증 이젠 간단히 치료하세요!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휘성처럼 만성 허리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경추 통증 및 어깨 통증 증상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기보다는 가격만 비싸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주는 꼬리뼈 신경 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추화 요법, 침 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자주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은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질환에 따라 경막외 신경 치료술, 고주파 디스크 치료,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등의 여러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술 후 재발 방지와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강남초이스병원은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둔 도수·감압·운동치료를 병행하는데 도수치료는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하면서 척추뼈를 바로 잡아 신경 압박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다. 또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는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켜 손상되거나 퇴행된 디스크를 회복시키는 치료며 운동치료는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근육·인대를 강화시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치료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홍대입구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 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점 02)875-2200 홍대점 02)336-2200

/황재용기자

눈꽃밭 갈까…얼음 속 월척 낚을까

관광공사가 추천한 전국 겨울 축제

추위를 무색하게 만드는 다양한 겨울 축제들이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특히 2014년 새해를 맞이하는 1월은 겨울 축제의 중심이다.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전국 겨울 축제를 소개한다.

◆눈·얼음 있는 곳마다 아이들 '까르르'

한국관광공사는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를 통해 겨울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겨울 축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눈과 얼음이 빚어내는 눈꽃 축제가 다양하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부터 시작된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가 첫 포문을 열었으며 겨울 여행의 백미인 '대관령 눈꽃축제'가 오는 3일 시작된다. 또 대관령과 강원도 눈꽃축제를 양분하고 있는 '태백산 눈꽃축제'는 오는 17일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또 직접 체험을 하며 겨울을 즐길 수 있는 고기 잡기 축제가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평창송어축제'가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지고, 화천에서는 오는 4일부터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가 열린다. 겨울 축제의 최고봉인 '인제빙어축제' 역시 18일부터 시작돼 겨울 축제를 더 알차게 만든다.

겨울놀이 축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다.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영월 동강 겨울축제' '홍천강 꽁꽁축제' '대둔산 수락계곡 얼음축제' '양평농촌체험마을 아이스페스티벌'은 벌써 시작됐으며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와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는 오는 3일 동시에 개최된다.

이와 함께 빛축제가 전국에서 열리는데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가 오는 5일까지 계속되며, '보성차밭 빛축제'와 '여수 빛노리야 축제'는 겨울 내내 하늘을 반짝이게 만든다.

◆국내 겨울여행지 추천하면 경품받을 기회

이와 함께 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겨울철 국내 관광 촉진을 위해 다음달 5일까지 '네티즌이 추천하는 겨울철 가볼 만한 국내 여행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2014 겨울철 국내 여행 활성화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korean.visitkorea.or.kr) 이벤트 코너에서 겨울 풍경이 아름다운 관광지나 재미있는 겨울 축제·체험 여행지 등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곳들을 추천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관광공사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250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권(30명), 코리아패스카드 3만원권(50명), 온누리상품권 2만원권(70명), 문화상품권 1만원권(100명)을 증정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새해 더 편해진 여행 제도

러시아 무비자 여행·전국 교통카드 호환…

올해부터 무비자로 러시아를 여행할 수 있고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연휴가 대폭 늘어난다. 이처럼 2014년도 여행·레저 부문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을 소개한다.

◆올해 67일 논다

올해 공휴일은 총 67일에 달한다.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돼 12년 만에 최다 휴일을 가진 해가 됐다. 본격적인 연휴가 발생하는 달은 5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과 6일 석가탄신일을 쉬게 된다. 2일에 휴가를 쓰면 6일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6월에는 4일 지방선거와 현충일인 6일 사이에 5일에 휴가를 쓰면 5일 동안 쉴 수 있다. 9월에는 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가 10일까지 이어진다.

◆60일간의 러시아 무비자 여행

지난해 11월 한·러 양국이 체결한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발효돼 1일부터 러시아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게 됐다.

근로·거주·유학 목적이 아닌 경우 상대국에서 사증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60일 체류 후 출국해 120일 이후 다시 입국할 경우 또 60일을 머물 수 있다. 속초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북방 항로의 뉴블루오션호를 통해 1일 오전 11시 무비자로 러시아 관광객 240명이 처음으로 입국했으며 양국으로의 여행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버스·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 호환 선불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그동안은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철도를 이용할 때 사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 장의 카드로 지역 외 이동이 가능하고 특히 고속도로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비행기 이착륙 때 전자기기 사용 가능

항공기 이착륙 시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휴대용 전자기기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휴대전화는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노트북과 같이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선반이나 좌석 아래에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항공기 내에서도 전자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의 이행 지침을 마련해 항공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만들기

정부가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 개장,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시행한다. 국공립 핵심 문화시설과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영화관부터 적용되며 이후 다양한 분야의 시설 및 민간 분야로 정책이 확대된다. 또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도 발급된다.

2014
갑오년

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세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소망을 담아
2014년 갑오년에도
여러분의 꿈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미끄럼 막는 아이젠, 눈 샐틈 없는 스패츠

달아오르는 겨울산행 열기…필수 용품 챙겨 가세요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을 마무리하고 갑오년 새해를 맞아 해맞이 산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해맞이 산행은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꼼꼼한 등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산행에 필요한 안전용품을 미리 챙기는 것도 필수다. 이런 가운데 주요 온라인몰에서 해맞이 산행을 도와주는 겨울 산행 아이템들이 인기를 끌며 매출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에서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등산용품 판매량이 전월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특히 겨울 산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등산 스틱과 아이젠 판매량은 같은 기간 각각 45%, 137% 급증했다. 이외에도 핫팩 판매량은 38%, 보온병 판매량은 23% 신장했다.

G마켓에서도 등산용 스틱은 최근 2주 기준으로 전월 대비 판매량이 63% 증가했다. 핫팩·휴대용 난로는 15% 늘었다. 따뜻한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보온병은 9% 증가했다. 미끄럼 방지용품인 아이젠은 1075%, 등산화 안으로 눈이나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스패츠는 365%나 급증했다.

옥션에서도 신년맞이 해맞이 등산을 준비하는 등산객이 많아지면서 등산용품 판매량이 전월 대비 60% 이상 신장했다. 아이젠이 770%, 스패츠가 250%로 크게 늘었으며, 방수스프레이 90%, 등산 스틱 30%, 핫팩·손난로도 30% 늘었다. 등산 선글라스 50%, 경등산화 30%, 고어텍스화도 20% 이상 각각 증가했다.

이렇게 겨울 산행 관련 제품의 매출이 급상승하면서 각 온라인몰에서는 관련 기획·특별전 등을 열고 할인에 나서고 있다.

인터파크 쇼핑 스포츠레저팀 채상현 MD는 "연말연시에는 새해 희망과 자기 다짐을 기원하기 위해 해넘이·해맞이 산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아 등산용품이 인기다"며 "장비가 많고 장거리 산행을 준비 중이라면 등산 스틱을 추천하며, 높은 산을 등산할 계획이라면 아이젠·스패치·핫팩 등을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쉐라톤인천 60% 싸게 즐기는 법

메트로 윈터 패키지 6일까지 예약시 할인

쉐라톤 인천 호텔은 새해를 맞아 메트로신문 고객 만을 위한 '메트로 윈터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메트로 윈터 패키지에는 탁트인 전망을 선사하는 디럭스룸에서 1박, 세계 각국의 요리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 '피스트'에서 2인 조식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피트니스와 실내 수영장 및 객실 인터넷 사용이 무료다. 패키지는 6일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2월 28일 안에 사용하면 된다.

메트로 지면에 기재된 전화번호 혹은 e메일(reservation.incheon@sheraton.com)을 통해 예약한 고객에 한해 정상가격보다 60% 저렴한 17만원(평일 기준, 세금 및 봉사료 별도)부터 제공한다. 문의: 032)835-1004

/박지원기자

주부들 "무료검진 혜택, 친정이 주고파"

이대병원 '새해선물' 설문 양가 부모 치매걸릴 경우 68% "요양원에 모실 것"

새해 선물을 하나만 보낼 수 있다면 주부 열 명 중 일곱 명은 시댁보다는 친정을 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화여대 의료원은 유아용품 업체 에디슨젓가락과 함께 최근 온라인을 통해 20~50대 주부 9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새해 선물을 한다면 친정에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시댁에 하겠다고 답한 주부는 30%에 그쳤다.

무료 건강검진의 혜택이 생긴다면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도 37%가 친정 부모를 꼽았다. 다음으로 남편(29%), 본인(25%), 시부모(5%) 순이었다.

새해 선물의 금액에 대해서는 친정과 시댁에 같은 금액의 선물을 하겠다는 답이 74%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22%는 친정에, 4%는 시댁에 더 고가의 선물을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친정 부모나 시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할 것 이냐 는 질문에는 '요양원에 모신다'는 의견이 68%,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답이 32%였다.

/박지원기자

패션기업 에스제이듀코 사랑나눔 '…밥차'행사

패션전문기업 (주)에스제이듀코가 지난해를 마무리하며 소외된 아동을 위한 사랑나눔 프로젝트 '사랑의 밥차' 행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에스제이듀코 임직원 30여 명은 지난해 12월 29일 남현동에 위치한 상록 보육원을 방문, 1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식사와 방한용 내의·생활용품 및 소정의 성금을 전달했다.

에스제이듀코는 S.T.듀퐁·빈치스벤치·쟈딕&볼테르·리즐리자등의 패션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 문의: www.sjduko.co.kr

유소년꿈나무 축구팀에 포카리스웨트 지원 눈길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의 포카리스웨트가 홍명보장학재단 공식음료 활동에 나선다. 포카리스웨트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잠실체육관에서 열린 'Share the Dream Football Match 2013'에서 '유소년 꿈나무 축구팀 음료'전달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원을 알렸다.

11회를 맞이하는 홍명보장학재단 자선축구는 올해부터 10년간 소아암 치료 기금 마련을 위한 장기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번 경기에서는 K리그 올스타와 더불어 해외리그 올스타 선수들이 출전했다.

강강술래, 말띠 고객에 냉면·상품권 쏜다

'청마의 해' 맞이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청마의 해를 맞아 청담과 시흥점에서는 오는 15일, 신림과 늘봄농원점은 31일까지 말띠 고객에게 냉면쿠폰(2매)을 증정한다. 상계점은 2월 말까지 말띠 고객이 구이 메뉴를 시키면 상품권(5000원권) 1매를 준다(사용 기간 매장별 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오는 6일까지 흑임자너비아니(2박스)와 한우떡갈비(1박스)로 구성된 '말달리자 세트'를 40% 할인된 2만8300원에 판매한다.

또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이달 5일까지 설 선물세트를 예약 판매한다. 최대 43% 할인 판매하며, 미리 주문 시 5% 추가 할인 혜택도 준다.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선물세트(800㎖·5팩 15인분)는 3만8000원, 소용량 세트(350㎖·5팩·10인분)는 2만3200원, 아토피 원인인 방부제를 뺀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 선물세트(6봉)는 2만6300원에 판매한다.

100% 한우갈빗살을 사용한 '질칠한우 떡갈비세트'(3박스·1.08kg)는 4만2200원,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세트'(3박스·1.08kg)는 2만63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우불고기1호(1.8kg)는 5만7000원, 한우불고기2호(3.6kg) 11만4000원, 술래양념1호(16대) 7만6000원에 판매한다. 인기 메뉴로 구성된 술래실속(술래16대+한우불고기 1.8kg)은 12만3500원,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장조림·총 2.4kg)는 13만3000원에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이벤트 참여)에 신청글을 남기면 60년 전통의 독일 파쉬 보온 물주머니도 증정한다. 폴리염화비닐(PVC) 재질로 만들어져 안전하고 견고하며 이불 속에 넣고 자면 화재나 전기세 걱정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아프거나 결리는 부위에 찜질팩 대용으로도 좋다.

DRAMAcube
칼을 품은 한 남자의 초고속 승진×복수 드라마
당하면 갚아준다!
두배로!!
드라마큐브가 선사하는 2014년 첫번째 프리미엄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
더빙판 | 매주 수~목 밤 10시 · 자막판 | 매주 금~토 밤 12시
일본을 무릎꿇린 42.2% 경이적인 시청률 기록!
디지털 케이블 TV | 티브로드 71번 CJ헬로비전 45번(HD) 219번(SD) 씨앤앰 44번(HD) 206번(SD) HCN 43번 IPTV | Btv 79번 Olleh tv 7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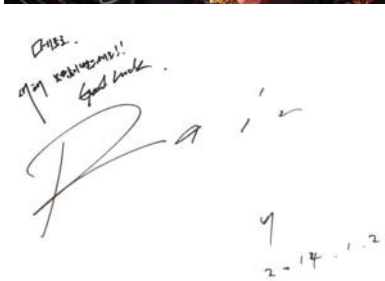
전천후 가수의 매력 보여줄게요

오늘 '레인 이펙트'로 컴백 비

비가 2014년 1호 가수로 나선다. 3년9개월 만의 새 앨범인 정규 6집 '레인 이펙트'를 2일 발표하고 더블 타이틀곡 '30 섹시'와 '라 송'을 앞세워 활동을 시작한다. 컴백을 맞는 뜨거운 의지, 구설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거침없이 털어놓은 그는 메트로신문 독자들에게 "여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인사도 함께 전했다.

◆여유와 내실

예전에는 무대에 돈을 많이 들였다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12개 수록곡 전체를 배진렬과 공동 작곡했고, 전곡을 혼자 작사했다.

"악을 품고 판을 뒤집으려 했던 이전과 달리 독기를 다 뺐어요. 3년 전부터 작업한 곡들에 최근 6개월 동안 밤을 새며 만든 곡들로 채웠죠. (박)진영이 형이 왜 비행기에까지 장비를 들고 가 곡을 만드는지 이제 그 재미를 알게 됐어요. 춤도 이전의 60% 정도의 힘으로 강한 솔에 의지해 추기로 했죠.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빨리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지 않으면 구질구질해질 것 같았죠."

12개 수록곡 모두 작사
듣는 음악에도 집중투자
하이힐 신고 무대에 올라
숨은 가창력 토해내겠다

◆스타일

키가 185cm인 그는 10cm 하이힐을 신고 무대에 오른다.

"유럽에서는 남자 하이힐이 유행이에요. 빨리 먼저 써먹으려고 들고 나왔죠. 안무도 하이힐을 감안해 구성했어요. 손에 장식한 액세서리 무게만 3kg인데 이를 이용한 섬세한 동작도 준비하고 있죠. 볼에 그려진 입술 마크는 노래로 말하겠다는 표현이에요."

◆보컬리스트

보컬 능력은 화려한 퍼포먼스에 가려져 있었다. 작심한 듯 수록곡 중 '사랑'과 '마릴린 먼로'에서 숨겨진 가창력을 마음껏 토해낸다.

"'사랑'은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춘 보컬에 신경을 많이 쓴 노래고, '마릴린 먼로'는 공기 반 소리 반에 가장 충실하게, 진영이 형에게 배운 그대로 부른 노래예요. 그동안 비주얼이 세다 보니 감상 위주의 곡도 묻혔었죠. 춤에 비해 노래가 약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전천후 가수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김태희

'사랑'은 특히 그의 연인 김태희를 향한 러브송이라는 강한 의심(?)을 받는 곡이다. "내가 그렇게 스위트한 사람이 아니다. 회사 사람들도 의심하는데 오랜만에 나오는 앨범에 감히 그런 정공법을 쓸 수 있겠느냐"며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잘 만나고 있으니 둘 다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전했다. 결혼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 젊어서 생각이 없다. 그 친구나 나나 일을 열심히 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연예병사와 리얼리티

연예병사 제도 폐지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과 부실 복무 의혹이 쏟아진 데 대해 "알려진 게 전부다. 모자를 벗고 보행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 사격을 잘해서 두 번의 포상휴가를 받았고, 휴가 일수는 정확히 59일이었다.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그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말하지 못한 억울한 점도 많았다. "오해는 오해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진실은 묻지 않은 채 의혹만 확대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많이 억울했지만 한편으로 대중은 부모와 같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어요.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줬고, 혼내기도 하잖아요."

지난달 방송을 시작한 엠넷 '레인 이펙트'는 그의 속내와 일상을 가장 내밀하게 볼 수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진정성 없이 행동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진짜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죠. 완전히 맡겨놔서 방송에 뭐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몰라요. 고통받는 모습, 스트레스받는 모습까지 다 드러내고 싶어요. 아버지도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번 방송을 보고 알게 되셨다더라고요."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17세기 파리, 남자의 전설이 부활한다!

2013.12.13~2014.2.2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프로듀서 김선미 연출 왕용범 협력연출 기요한 음악감독 이성준 안무 서병구 무대디자인 서숙진 조명디자인 민경수 음향디자인 권도경 의상디자인 한정임 분장디자인 양희선 소품디자인 김상희 영상디자인 송승규

출연 신성우 유준상 김법래 이건명 김민종 민영기 홍경수 엄기준 박무진 김형균 조순창 박진우 박성환 손준호 황이건 성민 Jun. K Key 박형식 송승현 서지영 김아선 소냐 김여진 김사은 다나 제이민 예은 외

투자 인터파크 INT 하나투어 공동제작 (주)엠뮤지컬아트 CJ E&M 협찬 LOUN.G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하나Ticket 1566-6668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CLIP service 1577-3363

www.musicalthreemusketeers.com

하정우·박신혜… 사극 타고 달린다

2014년 아침이 밝았다. '청마의 해'로 불리는 갑오년을 맞아 말띠 스타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만 36세에 접어든 1978년생과 24세의 1990년생 등 말띠 스타의 중심을 이루는 이들은 올 한 해 연예계를 종횡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하정우·주상욱·하지원.

1978년생 하지원·하정우·주상욱·이정진

안정된 연기력과 스타성을 모두 겸비한 원조 말띠 스타는 1978년생이다. 2013년 시작한 MBC '기황후'로 흥행몰이 중인 하지원은 새해 영화 '조선미녀삼총사'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드라마에 이어 영화에서도 흥행 신화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 하정우는 올해 영화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다. 강동원과 공동 주연한 사극 '군도: 민란의 시대'에 이어 직접 연출에 주연까지 맡은 '허삼관 매혈기'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허삼관 매혈기'는 중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위화의 동명 소설을 1950년대 한국으로 무대를 바꾼 휴먼드라마다.

드라마 '굿 닥터'를 통해 관심을 모은 주상욱은 새해 영화와 드라마를 동시 공략할 예정이다. 영화 '조선미녀삼총사'가 새해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 MBC '앙큼한 돌싱녀'의 주인공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KBS2 '우리동네 예체능'으로 예능 샛별로 떠오른 이정진은 MBC '백년의 유산'으로 국민 사위로 등극했다. 덕분에 '26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 남자 최우수상도 받았다. 올해 해외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

1990년생 박신혜·백진희·이유비·박보영

대표 동안 미녀 박보영은 영화 '늑대소년'을 통해 첫사랑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올해는 앳된 외모를 벗고 파격 이미지 변신에 나선다. 영화 '피끓는 청춘'(23일 개봉)을 통해 충청도 여자 일진으로 거듭나 거칠고 당찬 매력을 예고했다.

지난해 드라마 '상속자들'과 영화 '7번방의 선물'로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박신혜는 2월 크랭크인 예정인 초대형 감성 사극 영화 '상의원'에 캐스팅됐다. 소녀와 숙녀 사이에서 한층 성숙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2012년 드라마 '착한남자'로 방송계 관심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구가의 서'로 눈도장을 받은 이유비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진희는 가장 바쁘게 2013년을 보낸 스타다. 영화 '뜨거운 안녕' '무서운 이야기2'와 드라마 '금 나와라 뚝딱' '기황후'로 방송가를 종횡무진했다. 현재 그는 MBC '기황후'에서 미워할 수 없는 악녀 타나실리 역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상속자들'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 강하늘은 뮤지컬 무대와 드라마에서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신혜·박보영·백진희.

이승기·윤아 4개월째 열애

"서로 알아가는 단계"…차 안 데이트 즐겨

새해 첫날부터 대형 스타 커플이 탄생했다.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윤아(사진 왼쪽)와 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오른쪽)가 열애 중이다. 두 사람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1일 "서로를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단계"라고 교제를 인정했다.

집이 근처인 두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교제했으며, 국내·외를 오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주로 자동차 안에서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기는 교제 전부터 여러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윤아를 이상형으로 언급해왔다. 2011년 방송된 SBS '강심장'에서는 MC와 게스트로 만나 "좋아 죽겠다"고 거침없이 애정 표현을 했다. 윤아 역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승기는 소녀시대 모두의 이상형"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승기는 현재 tvN '꽃보다 누나'에서 짐꾼으로 활약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2013 MBC 연기대상'에서 '구가의 서'로 미니시리즈 남자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윤아는 KBS2 '총리와 나'에 출연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소녀시대의 새 앨범을 낼 예정이다.

/탁진현기자 tak0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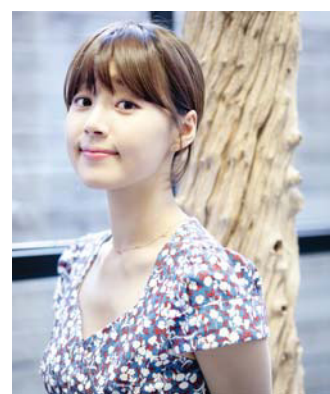
멜로 기대작 '태양은 가득히' 액션 대작 '쓰리 데이즈'…

2014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지상파 3사의 드라마와 배우들의 라인업이 공개되고 있다.

월화극은 KBS2 '총리와 나' 후속으로 편성된 '태양은 가득히'가 기대를 받고 있다. 오랜만에 안방으로 돌아오는 배우 윤계상과 2013 MBC 연기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배우 한지혜가 주인공으로 나선다.

연기파 배우 조진웅과 '응답하라 1994'의 해태로 스타덤에 오른 손호준이 가세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태양은 가득히'는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총기사건으로 인해 인생이 뒤바뀌게 된 두 남녀의 안타까운 인연을 그릴 예정이다. 2월 중 첫 방송을 목표로 곧 촬영에 들어간다.

MBC는 '기황후' 후속으로 대작 사극 '파천황'을 준비하고 있다. '파천황'은 '선덕여왕'의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대본 집필에 나서 화제가 된 작품이다. 조선 건국 최후의 세력인 정도전과 이방원의 대결을 중심으로 다룰 정치액션 장르다.

SBS는 '따뜻한 말 한마디' 후속으로 2013년 SBS 연기대상 최고 영예를 안은 이보영을 내세운 '신의 선물-14일'을 준비 중이다. 사랑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시간 여행을 떠나는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타임슬립 드라마다. 이보영이 여주인공으로 출연을 최종 검토 중이다. 이보영이 출연을 확정 짓는다면 데뷔 이래 처음으로 모성애 연기에 도전하게 된다.

한지혜

박유천

수목극은 KBS2 '예쁜 남자' 후속으로 이달 중 첫 방송 예정인 '감격시대'가 주목받고 있다. '감격시대'는 한류 주역 중 하나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타이틀롤을 맡았다.

MBC는 '미스코리아' 후속으로 '앙큼한 돌싱녀'로 승부수를 띄운다. 배우 이민정의 컴백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남녀 주인공으로 주상욱과 이민정이 출연을 최종 검토 중인 상황이다.

SBS는 인기리에 방영 중인 '별에서 온 그대' 후속으로 상반기 최고 기대작 '쓰리 데이즈'를 편성 확정하고 전투력을 발휘 중이다. 이 드라마는 '싸인' '유령'으로 사랑받은 김은희 작가의 신작으로 무엇보다 탄탄하고 매력적인 대본이 예상된다. 배우 박유천과 믿고 보는 배우 손현주·윤제문 등이 캐스팅을 확정 지은 상태다.

/양성운기자

"방송활동 늘 살얼음판 걷는 기분"

SBS 연예대상 받은 정선희

제작진 미팅 전화 왔길래 처음엔 하차 통보 인줄… 살다보면 살맛나는 하루

감동과 환희가 쏟아진 지난 연말 시상식들 중 보는 이들을 가장 뭉클하게 한 장면은 지난달 30일 방송인 정선희의 SBS '연예대상' 파워FM 부문 라디오DJ상 수상이었다.

2006년 MBC '방송연예대상' 최우수상, '연기대상'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 KBS '연예대상' 우수상으로 최고의 자리를 맛본 그였지만 7년 만에 손에 쥔 트로피 하나에는 지금까지의 어떤 상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 담겨있었다.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경규·신동엽·강호동·유재석·지석진 등 절친한 동료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몇 년이었다. 제겐 대상 이상의 의미를 가진 상"이라는 진심 어린 수상 소감은 웃음이 가득하던 시상식장을 숙연하게 했다.

새해 첫날 전화 인터뷰를 나눈 정선희는 "세련되게 받으려고 했는데 내 가족처럼 좋아해주는 그분들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났다. 내가 공로상을 받는 원로 배우도 아닌데 기립 박수까지…"라며 이틀이 지나도 가시지 않은 벅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다.

정선희는 일주일 전 '정선희의 오늘 같은 밤' 진행을 위해 방송국을 향하던 중 제작진으로부터 잠깐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새해를 앞두고 진행자 교체 통보를 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다.

"안 좋은 일에 대처하는 훈련이 잘돼 있어서 빨리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에 나오라'는 귀띔을 하고 가더라고요. 5년 동안 TV로만 보던 시상식장은 아직 나랑은 먼 곳이라고 생각했죠. 방송 활동도 살얼음을 걷는 기분으로 하고 있는 제게는요."

기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SBS '동물농장'의 새해 첫 방송(5일)부터 MC로 복귀한다. 2001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지키던 안방마님 자리로 5년2개월 만에 돌아가게 됐다.

"원년 멤버이자 TV 진행자로 가장 오래 했던 프로그램이라 특별히 애착이 컸어요. 지난 몇 년간 개편 때마다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준 프로그램이 '동물농장'이었고요. 짝사랑하던 동네 오빠가 마침내 밥 한번 같이 먹어주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호호호."

정선희를 바라보는 방송가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조심스럽게 접촉해오던 프로그램들은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신선한 진행을 원하는 시청자의 요구와 여성 MC 기근 현상이 맞물리면서 버라이어티·토크·코미디·교양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의 능력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도 정선희는 "80~90% 출연이 성사됐다가 무산된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연달아 일어날 그림을 미리 그리지 않기로 했다. 늘 준비하고, 상황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즐기겠다"며 담담해했다.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던 시기에는 건방져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몇 년간 하도 거절을 당하다 보니 습관이 됐어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된 현실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정선희의 재기는 개인의 기쁨을 넘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누구든 자신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사람이 힘을 내는 걸 보면서 희망을 얻게 되죠. '정선희는 끝났다'고 걱정해주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해준다면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거예요. 나만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꾸역꾸역 살다보면 살맛 나는 하루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올해 뮤지컬 대작 '풍년'일세

'저지 보이스' 등 봇물

갑오년 새해에는 다양한 뮤지컬 대작들이 줄줄이 첫선을 보여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오랫동안 뮤지컬 팬들의 기대를 모은 내한 뮤지컬부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브로드웨이 최신작, 최근 국내에서 주류로 부상한 유럽 뮤지컬까지 풍성하다.

치열한 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건 '저지 보이스'(17일~3월 23일·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내한 초연이다. 브로드웨이와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위키드' '라이언 킹'과 더불어 수년간 흥행 순위 톱 3의 자리를 지키는 주크박스 뮤지컬로, 1960년대를 풍미한 그룹 포시즌스 네 멤버의 성공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았다.

따끈따끈한 브로드웨이 신작도 줄을 잇는다. '킹키 부츠'(11월 초·충무아트홀)는 뮤지컬계 최고의 시상식으로 꼽히는 토니상에서 올해 작품상 등 6개 부문을 휩쓴 화제작으로, 팝디바 신디 로퍼가 만든 신나는 디스코와 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원스'(11월 말·예술의전당) 역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모은 동명의 음악 영화가 원작으로 지난해 토니상에서 작품상 등 8개 부문을 석권한 기대작이다.

또 뮤지컬 음악의 거장 프랭크 와일드혼의 초기작인 '드라큘라'(7월 말~9월 초·예술의전당), 팝스타 마돈나의 히트곡을 들을 수 있는 '프리실라'(7월 초~9월 말·LG아트센터)도 한국 관객을 처음 찾는다.

지난해 흥행한 '엘리자벳' '레베카'를 잇는 유럽 뮤지컬도 선보인다. 프랑스 뮤지컬 '태양왕'(4~5월·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은 17세기 프랑스 전제 군주였던 루이 14세의 일대기와 그가 사랑했던 세 여인과의 사랑을 담은 작품이며, '엘리자벳'의 극작가 미하엘 쿤체가 참여한 '마리 앙투아네트'(10월~2015년 2월·샤롯데시어터)는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삶을 다뤘다.

세계 무대를 겨냥한 창작 뮤지컬도 무대에 오른다. 충무아트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제작비 40억원 이상을 들여 만든 '프랑켄슈타인'(3월 18일~5월 11일·충무아트홀 대극장·사진)과 '명성황후' '영웅'을 제작한 윤호진 에이콤 대표가 웨스트엔드 창작진과 손잡고 만든 '보이첵'(10~11월·LG아트센터)이 선보여 라이선스 대작들과 당당히 경쟁한다.

/탁진현기자 tak0427@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명량: 회오리바다

극장가, 여기도 사극 저기도 사극

올해 극장가는 대작 사극으로 풍년을 맞을 전망이다.

이달 개봉할 '조선미녀삼총사'가 포문을 연다. 할리우드 영화 '미녀삼총사'의 조선판 격으로 '흥행 퀸' 하지원과 강예원, 가인이 여검객 삼총사로 나서 기대를 모은다.

정조 시대의 정쟁을 소재로 한 '역린'은 지난해 제대한 미남 스타 현빈의 복귀작이다. 현빈이 젊은 정조 역을 맡았고, MBC '다모'의 이재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또 다른 미남 스타 강동원의 복귀작인 '군도: 민란의 시대'는 철종 10년 백성의 편에 서고자 했던 도적들의 활약을 그렸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연출한 윤종빈 감독의 신작으로, 강동원이 흥행 스타 하정우와 함께 투톱으로 나서 화제다.

'명량: 회오리바다'는 2011년 7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하며 사극 흥행 바람을 일으킨 '최종병기 활'의 김한민 감독의 차기작이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이순신과 왜군 장수 구루지마 역에 각각 최민식과 류승룡이 나선다.

고려 말 세 검객의 애증과 복수를 다룬 '협녀: 칼의 기억'은 '월드스타' 이병헌과 '칸의 여왕' 전도연이 호흡을 맞춘 작품이다.

김남길·손예진 주연의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은 고래 배속에 들어간 조선의 국새를 되찾기 위해 해적·산적·관군이 대결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판타지 사극이다. 할리우드 흥행 대작 '캐리비안의 해적'의 한국판으로 통한다. /탁진현기자

감 먹으면 만사가 뜻대로…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2014년 갑오년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원하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새해 소원을 빌 때는 이왕지사 감을 먹으며 기원할 것을 권한다. 그것도 두 개를 먹는 것이 좋다.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한자로 사사여의(事事如意)라고 한다. 이 말을 그림으로 그릴 때는 감을 두 개 그려서 표현한다. 중국말로 일 사(事)자와 감 시(柿)자의 발음이 같기 때문이니 화폭에 그린 감 두 개는 일이 뜻하는 대로 풀리라는 덕담의 의미를 갖는다. 개업을 축하할 때 감이 그려진 동양화를 선물로 건네는 이유도 사업이 뜻하는 대로 이뤄져 부자 되라는 뜻이다.

일과 감의 중국어 발음이 같기 때문에 감 두 개가 만사형통의 의미가 된다니 얼핏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중국만의 풍속일 것 같지만 사실 한·중·일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다. 옛날 사람들은 감에 일곱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감은 수명이 길고, 잎이 풍성해 그늘이 짙으니 포용력이 크다고 보았다. 또 새가 둥우리를 틀지 않고, 좀이나 벌레가 끼지 않으니 잡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게다가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잎이 커서 글씨를 쓸 수 있으니 학문 증진에 도움이 된다. 군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셈이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음료수로 수정과를 준비했다. 수정과는 곶감을 넣어 만드니 혹시 새해에 만사가 순조롭게 이뤄지라는 덕담의 의미가 담겼을 수도 있겠다. 새해에는 모두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2		5		1	
		6				4		
	1						9	
4			7		8			5
	2		1	9	4		6	
	5						8	
3				1				2
	4	1				7	3	

4								1
		9	1		2	4		
	6		4		7		9	
	9	2	7		4	8	3	
				2				
	3	4	6		5	1	2	
	4		9		8		1	
		5	2		1	3		
1								9

스도쿠 정답

1	8	5	4	6	3	2	7	9
7	9	4	2	8	5	6	1	3
2	3	6	9	7	1	4	5	8
8	1	7	5	2	6	3	9	4
4	6	9	7	3	8	1	2	5
5	2	3	1	9	4	8	6	7
6	5	2	3	4	7	9	8	1
3	7	8	6	1	9	5	4	2
9	4	1	8	5	2	7	3	6

4	2	8	3	5	9	6	7	1
7	5	9	1	6	2	4	8	3
3	6	1	4	8	7	5	9	2
5	9	2	7	1	4	8	3	6
6	1	7	8	2	3	9	5	4
8	3	4	6	9	5	1	2	7
2	4	6	9	3	8	7	1	5
9	7	5	2	4	1	3	6	8
1	8	3	5	7	6	2	4	9

문제 제공= 보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퍼즐러 미디어 리미티드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문학가의 꿈 시간낭비 아닌지 상상력 탁월하니 시쓰기 도전

미알이 여자 58년 12월 31일 양력 밤 12시

Q 대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글을 쓰는 게 꿈이라 가끔씩 문학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글재주도 없으면서 욕심 탓에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A 2002년 월드컵 당시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또 '어떤 말을 만 번 이상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인디언 속담도 있습니다. 꿈꾸고 원하는 일이라면 자꾸 말로 해보십시오. 그 말에 의해 내 행동이 바뀔 것이고 그 행동이 모여 습관이 되다 보면 조금씩 꿈에 한 발씩 다가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신유(申酉)인수가 공망이라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인내심이 부족해 시작은 잘 하지만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상력을 초월하는 글에는 탁월한 재능이 있으니 짧은 시 등 독창적인 글을 쓰는 분야에 도전해보십시오. 지면상 조심할 부분은 다시 상담 신청하십시오.

어머니께서 결혼 강력히 반대 궁합 나쁘지만 발전하는 사주

쑹쑹아 여자 88년 5월 28일 양력 오전 6시
남자 85년 7월 15일 양력

Q 결혼을 전제로 1년가량 사귀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궁합을 보고 오시더니 최악이라며 반대합니다. 건강, 경제, 자식 등 하나도 좋은 것이 없답니다. 이 사람 없이는 미래를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A 과거에는 결혼 전 당사자 간의 접촉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 보다 안정된 혼인을 위해 남녀의 생년월일 궁합을 보고 사주와 오행에 살(煞)이 있으면 불길하다고 하여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청혼을 하지 않기 위한 처지를 고려한 거절의 방법으로도 일부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혼인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공개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남자는 가끔 타협이 안 될 수는 있어도 기본 성향이 명랑하고 매사 발전해가는 사주입니다. 여자분도 천을귀인 자식이 배우자와 합이 되어 있으니 중분 이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이어지면 2014년 9월부터 멀어지게 돼 이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2일 (음 12월 2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걱정한 일이 해결돼 한숨 돌린다. **60년생** 엄동설한에 매화를 만난 격. **72년생** 사소한 약속이라도 꼭 지켜라. **84년생** 정성 다하면 기적 같은 일 생긴다.

49년생 밖으로 나가면 입이 즐겁다. **61년생**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 마음 비워라. **73년생** 초반엔 고전하지만 끝에는 웃는다. **85년생** 쓸데없는 지출은 줄여라.

50년생 가슴 따뜻한 자녀 때문에 흐뭇. **62년생** 몸은 힘드나 마음은 편안하다. **74년생** 자신 있어도 욕심 버려야 무난. **86년생** 이성으로 인한 고민은 해결된다.

51년생 기대한 일은 빗나간다. **63년생** 바라는 일은 지연될 듯. **75년생** 대사 앞두고 돈에 인색하면 일만 꼬인다. **87년생** 일이 뜻대로 풀리니 콧노래 절로 난다.

52년생 매매와 관련된 일은 파란불. **64년생** 중매한 일은 성취하기 어렵다. **76년생** 재운이 열려 부수입이 짭짤하다. **88년생** 잘나간다고 너무 튀면 질투받는다.

53년생 고목에 꽃이 핀 격이다. **65년생** 단비가 내려 초목이 춤추는 형상이다. **77년생** 절친한 벗이 고민거리 갖고 온다. **89년생** 욕심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듯.

42년생 결정은 번개처럼 할 것. **54년생**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66년생** 말썽이 많은 일은 대세를 따르라. **78년생** 정보는 손에 넣지만 활용하기는 어렵다.

43년생 오라는 곳 많아 바쁘다. **55년생** 결정적 실수로 발목 잡힌다. **67년생**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나 손해는 없다. **79년생** 변화 있어도 직무에 최선 다하라.

44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니 편안. **56년생** 생각이 짧으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 **68년생** 버팀목 갑자기 사라져 황당. **80년생** 뜻대로 일이 풀려 자신감 넘친다.

45년생 중개한 일은 어렵게 성사된다. **57년생** 후견인 역할에만 충실할 것. **69년생** 비전이 마침내 현실로 완성된다. **81년생** 개성과 돌출 행동을 잘 구분하라.

46년생 자신 없는 일은 일찍 포기하라. **58년생** 바깥 활동을 늘리는 게 좋다. **70년생** 곳간 털어 먹기식 낭비는 그만하라. **82년생** 들뜬 마음은 서서히 안정된다.

47년생 인정에 얽매이면 손실 부른다. **59년생** 집안에 봄바람이 솔솔. **71년생** 풀었던 돈은 거둬들이는 게 좋다. **83년생** 손안에 들어온 고기라고 안심하지 마라.

김연아 소치 올림픽 금 기대

김승규 월드컵 주전 경쟁

이재학 亞게임 예비 스타

그대들 있어 더 설렌다

올해 빛낼 말띠 스포츠선수

2014년 스포츠계에는 역동하는 말띠 스타들의 활약으로 벌써부터 기대감이 치솟고 있다.

1990년생으로 만 24세가 되는 선수들이 대표적이다. 그 중심에는 '돌아온 퀸' 김연아가 있다. 그는 2012년 12월 복귀해 지난해 3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벌어진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건재함을 과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오른 발허리뼈 부상이 발견돼 참가 예정이었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프리 2·5차 대회에 모두 불참했지만 지난달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에서 우승해 소치올림픽 금메달 전망을 다시 밝혔다.

그는 다음달 8일 개막하는 소치동계올림픽에 출전해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 이어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2014 브라질월드컵을 준비하는 국가대표팀에도 말띠 스타들은 눈에 띈다. 최근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 자리를 위협하는 김승규(울산 현대)를 비롯해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한국영(쇼난 벨마레), 윤석영(돈캐스터 로버스) 등이다.

프로야구에서는 2013시즌 신인왕을 차지한 이재학(NC 다이노스)을 비롯해 정수빈·홍상삼(이상 두산 베어스)·안치홍(KIA 타이거즈)·김상수(삼성 라이온즈) 등이 24세가 되는 동갑내기다. 이들은 안방에서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빛낼 예비 스타로도 주목받고 있다.

골프계에도 말띠가 주목받고 있다. 2012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 출신인 유소연(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LPGA 투어에서 두 차례(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한 차례(한화금융 클래식) 준우승에 그친 한을 기필코 풀겠다는 각오다.

이들보다 열두 살 많은 1978년생 스타로는 소치 올림픽에서 투혼을 불사를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의 맏형 이규혁(서울시청)이 있다. 프로농구에서는 스타 가드 김승현(서울 삼성 썬더스)과 '올스타 덩크왕' 이승준(원주 동부 프로미) 등이 어느덧 36세 베테랑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 배구를 대표하는 리베로 여오현은 삼성화재 블루팡스를 떠나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로 이적해 새로운 팀에서 우승을 꿈꾸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농구경기 길~어지네!

스포츠 달라지는 것들

2014년 갑오년을 맞아 국내 스포츠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부터 프로야구는 사상 최초로 10개 프로 팀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창단한 KT 위즈가 올해부터 2군 리그에 첫발을 내딛는다. 1군 참가는 2015년이 돼야 하지만 프로 직함을 단 10개 구단이 레이스를 시작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올해는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늘었다. 1998년 처음 도입된 용병 제도는 지난해까지 구단당 2명 보유에 2명 출전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4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제도를 팀당 3명 보유할 수 있고 2명 출전으로 개정했다. 덕분에 화끈한 타격전도 볼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이 바뀌면서 구단들이 투수에 이어 거포 용병 구하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프로축구 K리그도 달라진다. 2014시즌 클래식에는 지난 시즌보다 2개 팀이 축소된 총 12개 팀이 참가한다. 정규 라운드는 33라운드(총 198경기)로 진행되고 이후 1~6위(그룹 A)와 7~12위(그룹 B)로 나뉜 스플릿 라운드 5라운드(총 30경기)가 펼쳐진다. 팀당 38경기씩(총 228경기)을 소화한다. 새 시즌은 3월 8일 시작돼 11월 30일 막을 내린다.

프로농구도 2014~2015시즌부터 한 쿼터 경기 시간이 12분으로 늘어난다. 기존 한 쿼터당 10분씩으로 진행됐으니 경기 시간은 총 8분이 늘어나게 된다.

/양성운기자

오승환 "첫 시즌 목표는 우승"

한신타이거스의 '수호신'으로 새해를 맞은 오승환(31·사진)이 첫 시즌 목표는 팀 우승이라고 당당히 밝혔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새해 첫날 인터넷판에 오승환의 인터뷰를 실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오승환은 "개인 성적보다는 팀 우승이 중요하다. 우승하면 개인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산케이스포츠는 "우승의 기쁨은 어느 나라에서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승패의 무게를 누구보다 실감하는 마무리 투수이기 때문에 목표를 단언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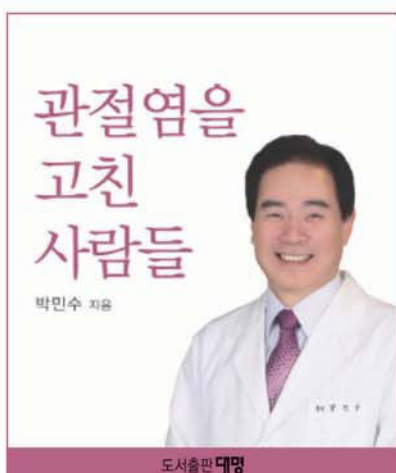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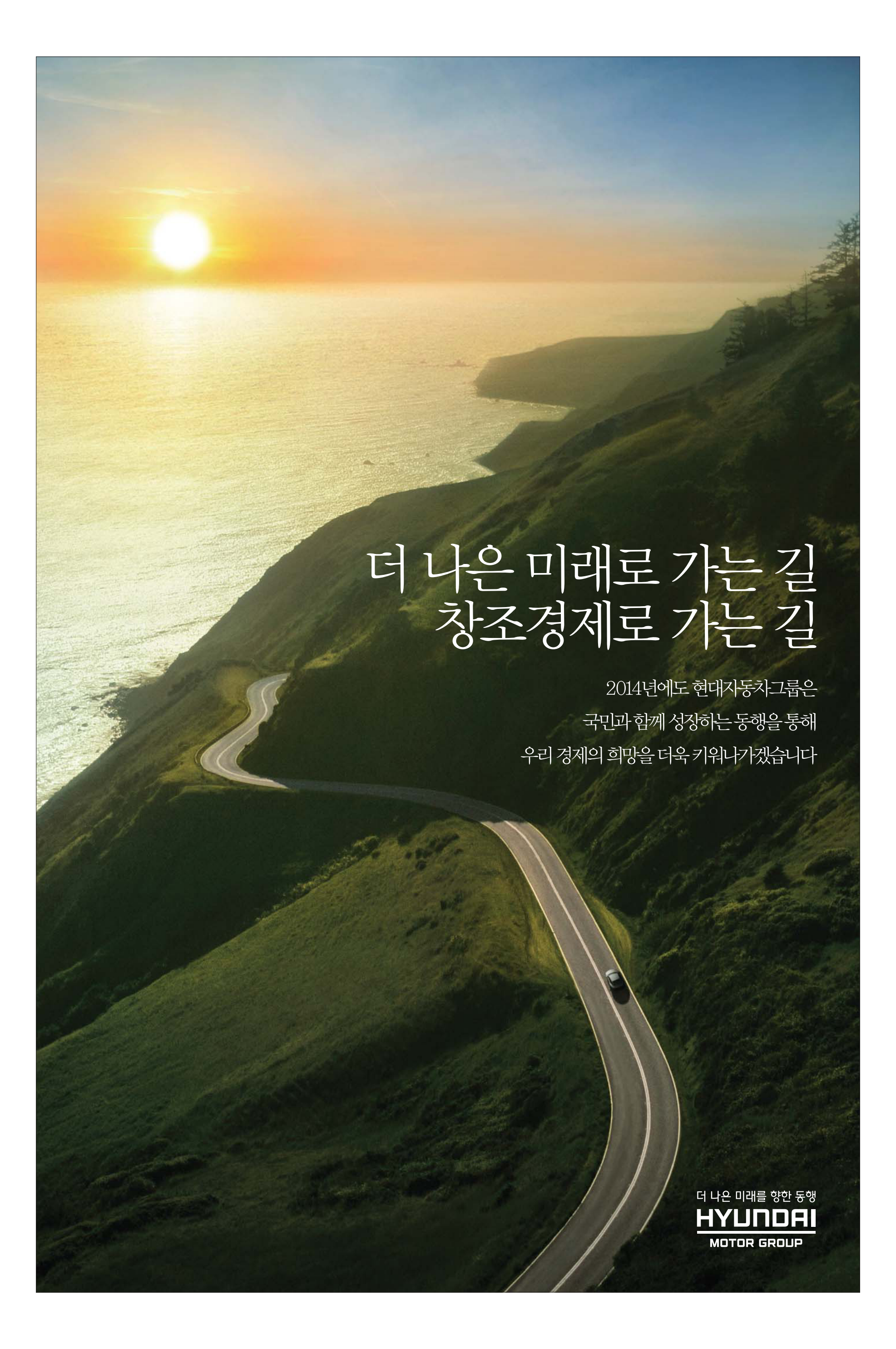
이 신문은 오승환이 활약하기 위해서는 앞서 등판할 불펜 투수가 제 몫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순호기자 suno@

프로농구 전적 1일

KT	22	22	10	26	9	89
전자랜드	26	16	22	16	6	86
동부	21	21	10	17		69
LG	18	21	23	20		82
삼성	11	16	24	20		71
SK	18	18	14	24		74
하나외환	12	17	18	22		69
우리은행	14	18	19	16		67

프로배구 전적 1일

대한항공	2	3	현대캐피탈
흥국생명	0	3	기업은행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
창조경제로 가는 길
2014년에도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동행을 통해
우리 경제의 희망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HYUNDAI
MOTOR GROUP